

● **표준 발음법**

이운영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

●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김선정 | 계명대학교 15

● **지금 쓰이는 말 - 현대 한국어 어휘**

조남호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47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이운영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53

●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어발음 교육현장 경험**

정인순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69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강의 교재 - 러시아 모스크바 -

표준 발음법

이운영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이 중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ㅓ,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ㅏ [a] A a

‘ㅏ’는 입을 아주 크게 열고 혀를 아래턱에 붙여서 내는 소리이다.

(1) 산, 바다, 하나, 사다리, 아리랑, 다람쥐, 아저씨, 자동차, 말, 달, 발, 쌀, 타다, 차다

ㅑ [ɛ]

‘ㅑ’는 ‘ㅓ’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2) 개, 배, 때, 대사, 애국, 개나리, 내 것, 맵다, 재다, 대들다, 태우다, 배우다

ㅓ [ɿ]

‘ㅓ’는 ‘ㅏ’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혀의 뒷부분이 ‘ㅏ’보다는 낮고 ‘ㅏ’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하면 ‘ㅓ’를 제대로 발음한 것이다.

(3) 너, 어깨, 절, 버릇, 먹었다, 선진국, 어린이, 청소, 건강, 선수, 열다, 거짓말

ㅕ [e] ㅑ ㅓ

‘ㅕ’는 ‘ㅓ’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한다. ‘지계’를 발음하면서 ‘ㅓ’와 ‘ㅕ’ 모음을 발음할 때 어떻게 조음 위치가 옮겨지는지 느껴 보자.

(4) 게, 베, 때, 셋, 넷, 무게, 세수, 체조, 제주도, 헤어지다, 게으르다

ㅗ [u] ㅛ y / ㅜ [o] O o

‘ㅗ’는 입을 거의 다물고 입술을 둥글게 해서 내는 소리로,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닿을 만큼 올려서 발음한다. ‘ㅜ’는 혀의 뒷부분을 ‘ㅗ’보다 내린 상태에서 입술을 오므리고 앞으로 내밀면서 발음한다. 러시아 어의 [u]와 [o]의 발음은 좀 더 깊고 어두운 소리인데, 한국어의 ‘ㅗ’나 ‘ㅗ’보다 입술을 좀 더 둥글게 내밀고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를 향해 좀 더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5) ㄱ. 술, 돌, 구두, 숙제, 우리, 고구려, 물, 두드리다, 푸다

ㄴ. 노래, 오늘, 보자기, 소나무, 토요일, 손, 몸, 공, 통, 보다, 놀다, 쓰다, 촉촉하다

ㅅ [ø] / ㅅ [y]

단모음 ‘ㅅ’과 ‘ㅅ’는 혀의 위치로는 각각 ‘ㅅ’, ‘ㅅ’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는데, 다만 ‘ㅅ’과 ‘ㅅ’의 때와는 달리 입술을 둥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발음한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발음하여야 한다. ‘ㅅ[we]’, ‘ㅅ[wi]’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에는 ‘ㅅ’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ㅅ’, ‘ㅅ’로 옮기며 발음하여야 한다.

- (6) ㄱ. 외길, 왼쪽, 뒷마루, 기회, 무죄, 죄인, 최후, 쇠고기
 ㄴ. 뒤, 위인, 들쥐, 뿔뿔기, 귀, 튀김, 취하다

ㅡ [ɯ]

‘ㅡ’는 ‘ㅅ’와 마찬가지로 입을 거의 다 다물고 입술을 평평하게 펴서 소리를 낸다. 이때 혀의 높이는 ‘ㅅ’와 같다.

- (7) 금, 은, 톱, 승리, 그림자, 느리다, 쓸쓸하다, 튼튼하다, 크다, 즐겁다, 늙었다

ㅣ [i] И и

‘ㅣ’는 입을 거의 다물고 내는 소리로, 입술을 양옆으로 펴고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바짝 접근시켜서 소리를 낸다.

- (8) 김, 김치, 미소, 반지, 시골, 이마, 기린, 비둘기, 기러기, 피리, 키, 이름, 지치다

나. 이중 모음

이중 모음에는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의 11개가 있다. 또한 ‘ㅅ, ㅅ’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중 모음에는 ‘ㅅ, ㅅ, ㅅ, ㅅ, ㅅ, ㅅ’처럼 각각 ‘ㅅ, ㅅ, ㅅ, ㅅ, ㅅ, ㅅ’의 앞에 반모음 [j]가 온 것이 있고, ‘ㅅ’처럼 ‘ㅡ’ 뒤에 [j]가 온 것이 있다. 또한 ‘ㅅ, ㅅ, ㅅ, ㅅ’는 각각 ‘ㅅ, ㅅ, ㅅ, ㅅ’의 앞에 반모음 [w]가 온 것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어의 이중 모음에는 모음 뒤에 [y](й ъ)가 뒤따르는 모음만 있다.

ㅏ [a] / ㅑ [ja] Я я, ㅓ [ʌ] / ㅕ [jʌ]

‘ㅏ’와 ‘ㅑ’는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각각 ‘ㅏ’와 ‘ㅑ’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 (9) ㄱ. 약사가 약사에게서 약을 샀다.
 ㄴ. 헛소리와 헛소리는 구별해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져’, ‘짜’, ‘다쳐’에 나타나는 ‘저, 짜, 처’는 [저, 짜, 처]로 발음한다.

ㅞ [jɛ]/ㅟ [jɐ] E e

‘ㅞ’와 ‘ㅟ’는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각각 ‘ㅞ’와 ‘ㅟ’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ㅟ’는 ‘예’와 ‘레’에서는 글자 그대로 소리 나고, 그 밖의 경우에는 ‘ㅞ’로도 소리 난다.

- (10) 예산, 의례, 차례, 시계, 은혜, 계시다

ㅝ [jo] Ё ё / ㅠ [ju] Ю ю

‘ㅝ’, ‘ㅠ’는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각각 ‘ㅝ’와 ‘ㅠ’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 (11) ㄱ. 요리, 교실, 비료, 묘비, 표
 ㄴ. 우유, 유리, 규칙, 일류

ㅘ[wa] / ㅙ[wɛ]

‘ㅘ’는 ‘ㅓ’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ㅘ’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ㅘ’ 소리를 발음할 때에 입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ㅙ’는 ‘ㅓ’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ㅙ’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 (12) ㄱ. 과자, 환경, 기와, 대왕, 관광, 화요일, 촬영
 ㄴ. 권리, 월급, 원인, 시원하다, 월요일

ㅚ [wɛ]/ㅜ [we]

‘ㅚ’, ‘ㅜ’는 ‘ㅓ’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ㅚ’, ‘ㅜ’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으로는 둘은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 말을 할 때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ㅜ’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 (13) ㄱ. 꽤, 빼기, 됐다, 괜찮다, 쾌활하다, 돼지
 ㄴ. 휘방, 웬만큼, 귀찮, 웬 (일)

ㄱ [i] ㄴ ㄷ

‘ㄱ’은 ‘ㄱ’ 소리에서 시작하여 재빨리 ‘ㅣ’소리로 옮겨 소리 내야 한다. 낱말의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ㅣ’로도 발음할 수 있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ㅣ’로 소리 내야 한다.

- (14) ㄱ. 의논, 의리, 의문, 의롭다, 의심하다, 의사, 의회
 ㄴ. 회의, 강의, 건의, 예의, 정의, 성의
 ㄷ. 무늬, 희망, 유희, 널리, 희미하다, 희끗희끗, 띄엄띄엄, 희다, 흰색

관형격 조사 ‘의’는 ‘기’로도 발음할 수 있다.

- (15) 나의 친구, 나라의 발전, 아버지의 가방, 고향의 봄, 민주주의의 승리

2. 자음

한국어 표준어 자음에는 다음의 19개가 있다.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ㅎ

가. 폐쇄음

폐쇄음은 허파에서 흘러나오던 공기를 발음 기관의 어떤 부위에서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ㅂ, ㅍ, ㅃ’은 두 입술을 닫아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ㄷ, ㅌ, ㄸ’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입 안에 가두었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ㄱ, ㅋ, ㆁ’은 혀뿌리를 연구개 앞부분에 대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ㅂ, ㄷ, ㄱ’은 어두의 첫소리로 날 때는 목청이 떨리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여러게 발음한다. 그러나 유성을 사이에서 실현될 때는 목청이 떨리면서 유성음으로 발음한다. ‘비’, ‘밥’ 등에서 나는 ‘ㅂ’과 ‘아버지’, ‘가방’ 등에서 나는 ‘ㅂ’은 음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차이는 한국어에서는 뜻을 구별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거센소리 ‘ㅍ, ㅌ, ㅋ’은 예사소리 ‘ㅂ, ㄷ, ㄱ’에 비해서 터짐이 격렬한 듯한 인상을 준다. 거센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터짐 뒤에 ‘ㅎ’ 소리가 이어 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손바닥을 입술에 대고 ‘탈,

때, 공' 등의 낱말들을 발음하여 보면, '달, 배, 공'을 낼 때와는 다르게 공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소리의 차이는 한국어에서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므로 밑줄 그은 음절의 예사 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면, 문장의 뜻이 전혀 달라진다.

- (16) ㄱ. 발이 매우 아프다 / 팔이 매우 아프다
- ㄴ. 달이 크다 / 탈이 크다
- ㄷ. 그는 아이다 / 크는 아이다

된소리 ‘ㅃ, ㅆ, ㄱ’은 발음 기관과 후두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발음하는 자음들이다. 그리하여 예사 소리가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면 이 된소리들은 딱딱하고 뻑뻑한 느낌을 준다. 이 된소리들은 무성음이고 유기성을 전혀 갖지 않는 무기음이다.(예) 빨강, 때, 꼬리)

러시아어의 폐쇄음 ‘п, т, к’은 영어의 ‘p, t, k’나 우리말의 ‘ㅍ, ㅌ, ㅋ’와 달리 기를 동반하지 않으므로 특히 모음 앞에서는 우리말의 ‘ㅃ, ㅆ, ㄱ’에 좀 더 가깝게 들리게 된다.

나. 마찰음

마찰음은 입 안의 어느 한 지점을 좁혀서, 공기를 좁아진 틈 사이로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에는 ‘ㅅ, ㅆ, ㅎ’이 있다. ‘ㅅ, ㅆ’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까이 접근시켜 내는 소리로, ‘ㅅ’은 예사 소리, ‘ㅆ’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ㅎ’은 성문의 두 성대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발음된다. 러시아어의 [x] X x는 ‘흙’을 발음할 때의 ‘ㅎ’과 비슷한 소리이다.

한국어에는 [f], [v]와 같은 마찰음이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f], [v]와 같은 소리를 잘 발음하지 못한다.

다. 파찰음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릴 때에는 폐쇄음처럼 일시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터뜨려서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내는 소리이다. ‘ㅈ, ㅉ, ㅊ’가 있는데 이 중 ‘ㅈ’은 혀바닥을 경구개 위치에 갖다 붙여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열어 주면서 내는 소리로 폐쇄음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 오면 유성음화된다.

라. 비음

공기를 입 쪽으로 내보내지 않고 코 쪽으로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자음들을 비음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다. ‘ㅁ’은 ‘ㅂ’과 같이 두 입술을 모아 발음하는 것이고, ‘ㄴ’은 ‘ㄷ’

과 같이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발음하는 것이며, ‘ㅇ’은 ‘ㄱ’과 입천장 뒤쪽에서 발음하는 것이다. 즉 ‘ㄱ, ㄴ, ㅇ’과 ‘ㅂ, ㄷ, ㄱ’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지만 발음하는 방식을 달리한다. 그리고 ‘ㅇ’은 첫 소리로 는 나지 않고 받침으로만 소리가 난다.

마. 유음

한국어에는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는데, 모음 사이에서는 ‘나라[nara]’처럼 [r]로 실현되고, 받침에 올 때에는 ‘날[nal]’처럼 [l]로 실현된다. [l]은 혀끝을 윗잇몸에 갖다 대어 중앙 통로는 막고 혀의 양 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r]은 혀끝으로 윗잇몸을 살짝 튀겨서 조음하며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 그리고 모음과 ‘ㅎ’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비해 러시아어의 [r] P p은 혀끝을 잇몸에 대고 1~2번 정도 떨려 나오는 음이다.

3. 받침의 발음

가. 홀받침의 발음

한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낫, 낫, 낫, 낫’은 모두 같은 발음 [낫]으로 난다. (예 키읓[키읓], 부엌[부엌], 젓[젓], 꽃[꽃], 숲[숲], 앞[앞])

이러한 받침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혹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는 제 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받침 위치에서 발음하는 것은 아니고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예 찾아서 [차자서], 못으로[모스로], 늦으면[느즈면], 밑으로[미트로])

나. 겹받침의 발음

한국어에는 11개의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ㅌ’이 있다.

(17) 갹[갹]/갹[갹], 막다[막따]/말다[막따], 안다[안따]/앉다[안따]

위의 각 쌍들은 표기는 다르지만 같은 발음이 나는 것으로서 겹받침을 갖는 단어들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가

지 발음될 수 있다. 그래서 겹받침이 마지막으로 오거나,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떨어지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겹받침의 종류에 따라 대개 일정하나 예외도 있다.

겹받침 ‘ㄱ, ㄴ, ㄹ, ㅍ, ㅂ’의 경우 둘째 소리는 탈락하고 첫소리만 발음한다. 이와는 달리 ‘ㄹ, ㄷ’은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고 두 번째 받침이 발음된다.

- (18) ㄱ. 값[갑], 앓다[안따], 녀[넉], 외곶[외골], 할대[할따]
ㄴ. 젊다[점따], 삶다[삼따], 읊다[읍따]

겹받침 ‘ㄹ’의 경우 ‘ㄹ’을 탈락시키고 ‘ㄹ’만 발음하는데(예) 여덟[여덜], 째다[잘따], 넓다[널따], ‘밟다’와 ‘넓둥글다, 넓죽하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ㄹ’을 탈락시키고 ‘ㅂ’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겹받침 ‘ㄹ’의 경우 첫 자음을 탈락시키고 둘째 자음만 발음한다. 그러나 ‘ㄹ’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첫 자음 ‘ㄹ’만 발음한다.(예) 닳[달], 맑대[막대], 맑게[말게→갈게], 맑구내[말구나→갈구나])

겹받침의 경우 겹받침 다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겹받침 중 뒤의 것만을 바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예) 흙이[흙기], 젊어[절머], 값이[갑사→갑씨], 밟은[발븐], 앓아[안자], 뚝으니[떨:브니], 없어[업:서→업:씨])

다. 받침 ‘ㅎ’의 발음

받침 ‘ㅎ’은 뒤따르는 ‘ㄱ, ㄷ, ㅈ’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ㅎ’받침 뒤에 ‘ㅅ’이 오면 그 ‘ㅅ’과 결합하여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

- (19) ㄱ. 놓고[노코], 좋다[조:타], 하얗지요[하야치요]
ㄴ. 좋소[조:쏘], 실소[실쏘]

그 밖에 ‘ㅎ’ 받침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오면 ‘ㅎ’으로 발음하지 않는다.(예) 놓는[논는], 날느냐[난느냐], 놓으니[노으니], 날아[나아], 쌓이다[싸이다])

이러한 받침 ‘ㅎ’의 특성은 겹받침 ‘ㄴ’과 ‘ㄷ’이 뒤에 오는 자음과 결합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4. 소리의 변화

가. 동화

서로 이웃해 있는 두 음 중 하나가 나머지 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가까운 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한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동화 중의 하나가 비음화 규칙이다. 이것은 폐쇄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규칙으로서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ㄷ(ㅅ, ㅅ, ㅅ, ㅅ, ㅅ, ㅅ)’, ‘ㅂ(ㅍ, ㅍ, ㅍ, ㅍ, ㅍ)’의 뒤에 비음 ‘ㄴ, ㄹ’이 오면 그 비음에 동화되어 각각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20) ㄱ. 국[국]-국물[궁물], 묵대[묵따]-묵는[몽는]
 ㄴ. 꽃[꼴]-꽃망울[꼴망울], 맞대[만따]-맞는[만는]
 ㄷ. 앞[압]-앞마당[암마당], 잡대[잡따]-잡는[잠는]

또한 한국어에서 ‘ㄴ’과 ‘ㄹ’이 이어져 나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다른 소리로 바뀌어야 하는데, 대개는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의 앞이나 뒤에서 소리가 ‘ㄹ’로 바뀐다. 겹받침의 앞의 ‘ㄹ’만 남는 음절이 앞에 올 경우에도 뒤의 ‘ㄴ’이 ‘ㄹ’로 바뀐다.

- (21) ㄱ. 만리[말리], 신라[실라], 칼날[칼랄], 난로[날로], 설날[설랄]
 ㄴ. 앓는[알른], 꿀네[꿀레], 활는[할른], 훤네[훤레]

또한 ‘ㄹ’은 ‘ㄹ,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뀌어 나고, ‘ㄱ, ㅂ’ 뒤에서도 ‘ㄴ’으로 소리 난다. (음료[음뇨], 담력[담녁], 염려[염녀], 종로[종노], 승리[승니], 강릉[강능])

구개음화도 중요한 동화의 하나다. 명사나 용언 어간의 말음 ‘ㄷ’과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에 이어져 발음될 때에는 각각 ‘ㅌ’과 ‘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 (22) ㄱ.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발이[바치], 곁이[거치], 살살이[사사치]
 ㄴ. 굳히대[구티다→구치다], 닫히대[다티다→다치다], 묻히대[무티다→무치다]

나. 소리의 첨가

한 낱말 안에서 소리가 덧나는 일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㉞ 담요[담뇨], 한여름[한녀름], 꽃잎[꼴닙], 색연필[생년필], 맨입[맨닙], 생이

별[생니별], 식용유[식용뉴])

이렇게 덧나는 소리는 글자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에 덧나는 소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차를 타 본 일[닐]이 있습니까?” 에서와 같이 ‘ㄴ’ 소리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덧나기도 한다. 다음은 단어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는 예이다.

받침 ‘ㄹ’ 뒤에서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술읇[술립], 설익다[설릭다], 일일이[일리리], 물엿[물렛], 알약[알락], 서울역[서울력])

다. 된소리 되기

‘ㄱ, ㄷ, ㅂ’이 받침으로 쓰이면 터지지 않는 소리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폐쇄음 다음에 장애음이 오면 그 장애음은 애초 예사소리였어도 반드시 된소리로 발음한다.

- (23) ㄱ. 책상[책쌍], 먹다[먹따], 민고[민꼬], 속부터[속뿌터]
- ㄴ. 깎다[깎따→깎따], 샳돈[삭돈→삭똥]
- ㄷ. 웃고[웃고→웃꼬], 꽃과[꼇과→꼇과]
- ㄹ. 있지[인자→인찌], 읊다[읍다→읍따]

어간 받침이 ‘ㄴ(ㄴ), ㄹ(ㄹ), ㄹ(ㄹ), ㄹ(ㄹ)’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24) ㄱ. 안다[안따], 안고[안꼬], 었다[언따], 었고[언꼬]
- ㄴ. 감다[감따], 감고[감꼬], 닭다[담따], 닭고[담꼬]
- ㄷ. 넓다[널따], 넓고[널꼬], 훑다[훑따], 훑고[훑꼬]

그 밖에도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하나하나 따로 익힐 수밖에 없다.

- (25) ㄱ. 물개[물까], (물건의 값) 결과[결과]
- ㄴ. 성과[성파], 성공[성공]
- ㄷ. 몸집[몸찹], 감기[감기]
- ㄹ. 인기[인끼], 전기[전기]
- ㅁ. 사건[사건], 사과[사과]

5. 강세와 억양

한국어에서 강세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의 끝에서는 억양을 통해 의미를 나타낸다.

(26) 가. 비가 와. (서술)

나. 비가 와? (의문)

(27) 가. 집에 가. (서술)

나. 집에 가? (의문)

다. 집에 가! (명령)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강의 교재 - 러시아 모스크바 -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김선정 | 계명대학교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김선정
계명대학교

1. 발음 교육의 목표

언어교육에 있어 발음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외국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외국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또는 외교관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어민 수준의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는 데 그 목표를 두게 된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발음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음 이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2. 발음 교육의 필요성

한국어를 교육해본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에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다시 말해, 외국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의 간섭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Ellis, 1985). 실제로 서양인들은 한국사람과 일본사람, 중국사람을 쉽게 구별하지 못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일지라도 영어 몇 마디를 하게 되면 어려움 없이 어느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콩글리쉬(Korean +

English)를 하고, 중국사람은 칭글리쉬(Chinese + English)를 하며, 일본사람은 장글리쉬(Japanese + English)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잘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에 있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개별 음소의 발음에서 오는 차이,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 상이한 음운현상이나 초분절적 요소 등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어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국어에 있는 말소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소리로 인지한다. 게다가 조음기관의 근육이 학습자의 모국어의 말소리를 발음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어에는 없는 한국어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며,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음 중 유사한 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소통이라고 본다면 발음 교육은 언어 학습에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발음 교육 방법

발음 수업은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구어 수업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발음 클리닉과 같은 별도의 발음 수업 시간을 두어 진행할 수도 있다. 발음교육은 대체로 제시 단계, 연습 단계, 생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3.1. 제시 단계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소리 및 그 소리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알게 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발음과 음운규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 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듣고 구별하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발음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3.2. 연습 단계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실제로 연습해 보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 대상 언

어의 발음을 모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습득한 발음을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발음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처음에는 음절 단위로 연습하다가 점차 낱말 단위로 연습한다. 그 다음에는 해당 낱말이 들어가 있는 문장 단위로 연습을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이용해 연습한다. 듣고 따라하기나 각각의 분절음을 음성적 환경을 달리하여 사용해 보게 하는 음성훈련, 문맥에 나타난 최소대립쌍 연습하기 등의 활동을 적용해 볼 수 있다.

3.3. 생성 단계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발음을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고정된 텍스트 없이 역할 놀이나 인터뷰, 패널 토의 등의 활동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배운 발음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해 보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주어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수업 현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절의 ‘발음교육의 실제’에서는 학습 목표가 되는 발음요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마다 제시와 연습, 생성 단계를 적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발음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보충심화] 문맥에 나타난 최소대립쌍 연습

최소대립쌍을 이용한 발음 연습은 개별 음소의 발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최소대립쌍이 되는 낱말들만을 제시하여 연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낱말 차원의 제시는 한국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고, 한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경우에는 낱말 수준의 최소대립쌍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문맥에 나타난 최소대립쌍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문장 내에 제시하는 경우	두 문장의 동일한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가. 우리 딸 은 달 을 좋아한다. 나. 굴 맛이 꿀 맛 같다. 다. 방 에 들어가서 빵 을 먹자.	가. 공원에 풀/불 이 났다. 나. 나는 굴/꿀 을 먹었다. 다. 아저씨는 공장에서 종/총 을 만든다.

4. 발음 교육의 실제

4.1. 자음 대조 및 교육 방안

4.1.1. 한국어의 자음

기의 세기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p]	ㄷ[t]		ㄱ[k]	
		경음	ㅃ[pʰ]	ㄸ[tʰ]		ㄲ[kʰ]	
		격음	ㅍ[pʰ]	ㅌ[tʰ]		ㅋ[kʰ]	
	마찰음	평음		ㅅ[s]			
		경음		ㅆ[sʰ]			
		격음					ㅎ[h]
	파찰음	평음				ㅈ[tʃ]	
		경음				ㅉ[tʃʰ]	
		격음				ㅊ[tʃʰ]	
공명음	비음		ㅁ[m]	ㄴ[n]		ㅇ[ŋ]	
	유음			ㄹ[l/r]			

4.1.2. 러시아어의 자음

러시아어의 자음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성대 진동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연	경	연
파열음	무성	p	pʰ			t	tʰ				k	kʰ
	유성	b	bʰ			d	dʰ				g	gʰ
마찰음	무성			f	fʰ	s	sʰ	š			x	xʰ
	유성			v	vʰ	z	zʰ	ž				
파찰음	무성							c		č		
	유성							ʒ		ʒ		
비음	유성	m	mʰ			n	nʰ					
유음	유성					l	lʰ					
진동음	유성							r	rʰ			
전이음	유성									j		

〈한국어 자음 체계와의 비교〉

한국어 자음과 러시아 어 자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음위치

러시아 어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음위치 면에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위치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조음위치 면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발음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러시아 어는 연자음과 경자음으로 구분된다.

② 조음방법

가. 장애음

러시아 어에서는 조음방법상 공명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대립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러한 유성과 무성의 대립이 없는 대신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이 있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 파열음

러시아 어의 /b, d, g/는 한국어의 평음에, /p, t, k/는 한국어의 격음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ㅂ, ㄷ, ㄱ/를 러시아 어의 /p, t, k/로 대치하여 발음한다. 반면, 러시아 어의 /p, t, k/는 평음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어의 /ㅂ, ㄷ, ㄱ/와, 유기음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어의 /ㅍ, ㅌ, ㅋ/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 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ㅂ, ㄷ, ㄱ/와 /ㅍ, ㅌ, ㅋ/를 구별해서 발음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 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유성과 무성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써 러시아 어권 학습자들은 /달/과 /딸/, /달/과 /탈/ 같은 평음과 경음,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유성과 무성의 대립으로 인식하여 발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 화자는 /배/, /뺨/, /패/를 독립적으로 발음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어권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배/와 /뺨/, 혹은 /배/와 /패/만을 구분하여 발음하려고 한다.

· 마찰음

마찰음의 경우 러시아 어에는 유성과 무성의 대립만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마찰음 /ㅅ/와 /ㅆ/를 구분하여 발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파찰음

러시아 어에는 치경음계열과 경구개음 계열이 있다. 러시아 어의 파찰음은 유성과 무성의 대립만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ㅈ, ㅊ, ㅉ/를 구별해서 발음하기 어렵다.

나. 공명음

공명음에 나타나는 러시아 어와 한국어의 조음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두 언어에서 모두 유성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 비음

한국어의 비음은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의 세 가지가 있으나 러시아 어에는 양순음과 치조음만이 있다. 한국어의 연구개 비음 /ŋ/은 러시아 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ng/ 라는 두 자음의 결합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삼성’을 발음할 때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삼순가]나 [삼순가][samsun\$ga]처럼 /n/(또는 /ŋ/)을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g/를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한다.

· 유음

러시아 어의 유음에는 /l/가 있다. 그리고 이 소리에는 연음, 경음의 대립이 있다. 러시아 어의 유음 [l]는 한국어의 유음 [l]와 동일하여 한국어의 [l]를 발음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의 유음은 모음 사이에서 탄설음 [ɾ]로 소리 나는데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이 소리를 [l]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4.2. 모음 대조 및 교육 방안

4.2.1. 한국어의 모음

〈한국어의 단모음〉

(앞) ← 혀의 위치 → (뒤)

혀의 높이 \ 입술모양	전설모음(front)		후설모음(back)	
	평순(unround)	원순(round)	평순(unround)	원순(round)
고모음(high)	ㅣ /i/	(ㅍ) /u/	ㅡ /i/	ㅓ /u/
중모음(mid)	ㅓ /ɛ/	(ㅑ) /ø/	ㅕ /ə/	ㅗ /o/
저모음(low)	ㅚ /æ/		ㅓ /a/	

〈한국어의 이중모음〉

ㅣ(=/y/)계 이중모음	ㅟ; /ya/ ㅠ; /yu/	ㅚ; /yə/ ㅞ; /ye/	ㅟ; /yo/ ㅞ; /yε/
ㅓ(=/w/)계 이중모음	ㅓ; /wa/ ㅖ; /wε/	ㅓ; /wə/ ㅖ; /we/	ㅓ; /wi/ ㅖ; /we/
ㅡ(=/i/)계 이중모음	ㅣ; /iy/		

4.2.2. 러시아 어의 모음

러시아 어의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와 혀의 앞뒤 위치, 입술모양(원순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모양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i	(y)	u
중모음		e		o
저모음			a	

〈한국어 모음과의 비교〉

러시아 어 모음체계는 한국어보다 단순한 5모음 체계이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ㄱ/ 모음을 /-나 /ㅓ/로 인식하여 발음한다. 따라서 ‘거기’를 [고기]로, ‘것’을 [곳], ‘무엇’을 [무엇]으로 발음하게 된다. 한국어 모음 /ㅡ/의 발음도 러시아인들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워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도 교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러시아 어에는 반모음과 모음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y/로 시작하는 한국어 이중모음은 잘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ㄱ/와 /-나, /계/와 /ㅞ/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ㄱ, ㅟ, ㅞ, ㅞ/ 이중모음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러시아 어에는 한국어의 [w]와 같은 반모음이 없으므로 /과/, /기/, /새/, /거/, /겨/를 듣거나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반모음 [w]를 순치음 [v]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러시아 어의 모음은 초분절 요소인 강세의 유무에 따라 모음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e, o/ 모음은 발음되지 않는다. 각각 [i]와 [a]로 발음된다. 따라

서 러시아 어 모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음을 발음할 때 러시아 어 모음 약화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4.3. 한국어의 음절 교육 방안

4.3.1. 한국어 음절구조의 특성

앞 장에서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교육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음절부터 다루기로 한다. 음절이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로 한국어의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하여야 음절을 이룰 수 있으며, 자음 홀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또한 철자에는 두 개의 자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 번에 하나만 발음될 수 있다(예, 닭[닥], 값[갑]). 즉, 어두에서든지 어말에서든지 어느 위치에서도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될 수 없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아래 네 가지뿐이다.

음절구조 유형	예
모음(v)	아, 오, 이, 우
자음 + 모음(cv)	가, 나, 무, 소
모음 + 자음(vc)	입, 온, 울
자음 + 모음 + 자음(cvc)	감, 공, 문

한국어에서 음절이 갖는 역할은 영어나 기타 서양 언어에서보다 크다. 쓰기 체계에 음절 개념을 도입하여 음절 단위로 쓰는 것(예를 들어, Kim vs. 김)은 물론, 어떤 말을 줄여 사용할 때도 영어에서는 맨 앞 철자만을 취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맨 앞 음절들을 취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FTA, WTO, UN 등의 약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대교협, 한노총, 교과부’ 등을 사용한다. 이는 앞 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글이 음소문자이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이다.

4.3.2. 음절구조 교육의 실제

외국어 화자로서의 강한 악센트가 섞인 어색한 한국어 발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소뿐만 아니라 음절을 특성을 익혀야 한다.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발음상의 오류는 개별 음소의 발음에서 오는 차이로 기인한 오류만큼이나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게 된다.

(1) 자음을 고정해 놓고, 모음을 바꿔 가며 음절을 익힌다.

가. 마, 미, 무, 메, 모
나. 바, 비, 부, 베, 보
다. 나, 니, 누, 네, 노

(2) 모음을 고정해 놓고, 자음을 바꿔 가며 음절을 익힌다.

가. 가, 나, 다, 라, 마
나. 고, 노, 도, 로, 모
다. 구, 누, 두, 루, 무

(3) 받침이 있는 음절을 연습한다. 이 때 ‘꽃, 잎’ 등과 같이 소리의 변동이 있는 낱말은 피하도록 한다.

가. 산, 감, 강, 곰, 간
나. 남, 공, 난, 맘, 김

(4) 한 음절 내에서 자음의 연쇄가 불가능한 특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외래어를 활용한다.

가. print, skate, spring : 프린트, 스케이트, 스프링
나. silk, pulp, Donald : 실크, 펄프, 도널드

칠판에 영어 단어를 적어주고 한국식으로 발음하여 주면서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설명함으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때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친숙한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 등을 이용해도 좋다.

(5) 음절 학습이 모두 끝나면, 교사가 학습자에게 개별 자음과 모음을 일정한 순서 없이 제시하여 주고, 이를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 각자가 만든 음절을 쓰게 한 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제시 자음: ㅂ, ㄷ, ㄱ, ㄴ, ㄷ 등

제시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등

만든 음절: 도, 모, 밥, 굽 등

또한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한글의 특징을 익힌다.

4.4. 한국어의 받침 발음 교육 방안

4.4.1. 흘받침 발음의 교육 방안

(1) 흘받침 발음의 특성

흘받침의 발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이 음절말의 위치에서 일곱 개의 소리만이 발음된다는 사실이다. 앞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장애음에 존재하는 세 계열의 자음은 한국어 자음과 관련된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계열의 자음은 모든 위치에서 제 소리 값대로 발음되지 않는다. 어두에서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제 음가대로 소리 나지만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는 제 소리대로 발음되지 못 한다(예, ㅂ[ㅂ], ㅍ[ㅍ]) : 입[입], 잎[입]). 다시 말해, 이 세 계열의 자음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 파열되지 않은 음으로 발음된다. 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이나 파찰음(ㅈ, ㅉ, ㅊ)도 같은 위치에서 나는 대표음인 ‘ㄷ’로 소리 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철자상의 자음	환경	발음	예
ㅂ, ㅍ	어말 또는 자음 앞	ㅂ[p̚]	밥, 잎
ㄱ, ㅋ, ㆁ		ㄱ[k̚]	국, 부엌, 닭다,
ㄷ, ㅌ, ㅅ, ㅆ, ㅈ, ㅊ		ㄷ[t̚]	꽃, 다섯, 있습니다, 술, 세뱃돈, 잇다
ㄹ[r]		ㄹ[l]	무리 : 물, 다리 : 달
ㅁ		ㅁ[m]	밤, 숨
ㄴ		ㄴ[n]	산, 문
ㅇ		ㅇ[ŋ]	공, 방

‘밥’이라는 단어에서 어두의 ‘ㅂ’와 어말의 ‘ㅂ’는 그 모습은 같으나 실제로는 다른 소리이다. 다시 말해 어두에서 나는 ‘ㅂ’는 파열된 소리인 반면, 어말에서 나는 ‘ㅂ’는 파열되지 않은 소리, 즉 [p̚]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으면 받침에 있는 ‘ㅂ’를 파열시켜 발음함

로 우리에게는 마치 *[바브]처럼 들린다.

(2) 흘받침 발음 교육의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의 받침 발음에서 모든 장애음이 파열되지 않은 [ㄱ, ㄷ, ㅂ] 세 개의 소리 중 하나로 발음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흘받침의 발음을 교육할 때에는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도 제 소리 값을 잃지 않는 비음 ‘ㄴ, ㄹ, ㅇ’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

① 비음의 발음

앞에서 말한 대로 비음은 초성에서의 음가와 다르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다만, 일본어나 중국어와 같이 비음을 종성으로 허용하되 제한된 소리만을 허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학습이 필요하다.

가. 어두 비음 연습- 나, 니, 누 내, 노 : 마, 미, 무, 매, 모
나.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반복 연습- 강, 공, 망 : 간, 끈, 만 : 감, 곰, 맘
다. 최소대립쌍 연습- 정 : 전, 간 : 강, 공 : 곰

② 유음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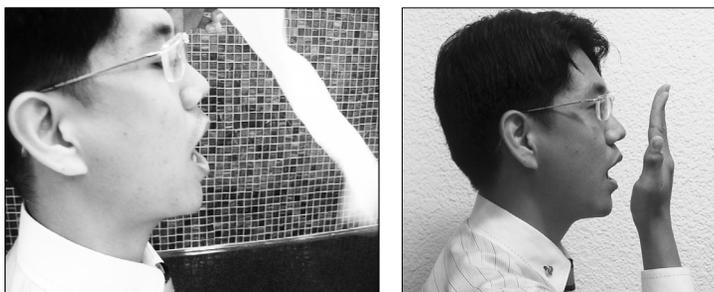
음절말의 ‘ㄹ’은 모음 사이의 ‘ㄹ’과 발음이 다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ㄹ’은 음절말에서 [l]로 발음된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영어의 ‘tall, call, salt’ 등과 같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나는 [tʃ]과도 다른 소리이다. 따라서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혀끝을 치조 위치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혀끝이 상대방에 보이도록 연습한다.

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ㄹ’ 연습: 소리, 다리, 무리
나. 어말에 있는 ‘ㄹ’ 연습: 술, 달, 물

③ 장애음의 발음

장애음의 경우는 무엇보다 어떤 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ㄱ, ㅋ, ㆁ’은 [ㄱ]로, ‘ㅂ, ㅃ’은 [ㅂ]로, 나머지 장애음은 [ㄷ]로 발음되므로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즉, ‘ㄱ’ 계열 소리와 ‘ㅂ’ 계열 소리로 구분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ㄷ]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도록 한다.

가. 먼저 어두에 있는 장애음의 발음을 다시 한 번 연습한다. 평음, 경음, 격음은 우리 몸에서 나가는 공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경음은 공기의 양이 가장 적은 소리이고, 격음은 공기의 양이 가장 많은 소리이다. 평음은 두 계열의 중간 정도의 소리이다. 따라서 장애음을 학습할 때에는 아래 그림처럼 학습자들에게 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쁘, 브, 프’를 발음해 보도록 하여 공기의 세기를 직접 느껴보게 한다. 또는 A4 용지나 아래 그림처럼 얇은 휴지를 이용하여 발음해 보도록 해도 좋다. 이때 종이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소리가 격음이고, 가장 적게 흔들리는 소리가 경음이다. 파열음을 학습할 때에는 공기의 세기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양순음(ㅃ, ㅍ)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 다른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으로 넘어간다.



<파열음 연습>

ㅃ : 바 : 파, ㅍ : 다 : 타, ㅈ : 가 : 카, ㅊ : 자 : 차, ㅍ : 사

이뿐만 아니라 평음, 경음, 격음은 소리의 높낮이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평음은 낮은 소리, 격음은 높은 소리, 경음은 그 중간 소리이다. 예를 들어, ‘달을 보세요’와 ‘탈을 보세요’를 발음할 때 ‘탈’은 ‘달’ 보다 높은 소리이다. 음악적으로 볼 때, 격음은 평음보다 약보에서 한 옥타브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나. ‘cup, top, cap, cab’을 한국어처럼 발음하여 어말 자음이 파열되지 않음을 인식시켜준다. 발화 시 입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지 않고 그냥 붙이고 끝나는 것을 여러 번 보여 준다.

다. 받침에 있는 장애음을 연습한다. 먼저 ‘ㄴ’로 공기가 파열하지 않는 특징을 확인하게 한 후, 다른 장애음(ㄱ, ㄷ 등)으로 넘어가면 좋다. 그런 다음에는 ‘ㄱ, ㅅ, ㅈ, ㅊ’의 받침을 가진 낱말들을 이용

하여 연습한다.

가. 양순음 연습 - 입, 잎, 밥, 앞
 나. 연구개음 연습 - 떡, 국, 부엌, 낚시, 밖
 다. 치조경구개음 연습 - 꽃, 낫, 옷, 낫, 솔

라. 위에 제시된 단어 뒤에 주격조사 ‘이’를 붙여 발음해 본다. 이는 중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가. 입이, 잎이, 밥이, 앞이
 나. 떡이, 국이, 부엌이, 밖이
 다. 꽃이, 낫이, 옷이, 낫이

음절 익히거나 낱말 발음하기 등의 연습이 끝나면 연습한 낱말들을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4.4.2. 겹받침 발음의 교육 방안

(1) 겹받침 발음의 특성

한국어에는 철자상 열한 개의 겹자음이 받침에 올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한 음절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겹자음이 모두 발음될 수 없다. 두 자음 중에 한 자음만이 소리 난다. ‘ㄹ, ㄴ, ㄷ’ 경우만 제외하면 앞 자음이 발음된다.

〈겹받침의 발음〉

앞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환경	뒷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철자	소리	예		철자	소리	예
ㄱ	ㄱ	ㄱ[ㄱ]	어말 또는 자음 앞	ㄹ	ㄱ	ㄹ[ㄱ]
ㄴ	ㄴ	ㄴ[ㄴ]		ㄹ	ㄴ	ㄹ[ㄴ]
ㄷ	ㄷ	ㄷ[ㄷ]		ㄹ	ㄷ	ㄹ[ㄷ]
ㄹ	ㄹ	ㄹ[ㄹ]		ㄹ	ㄹ	ㄹ[ㄹ]
ㄴ	ㄴ	ㄴ[ㄴ]		ㄹ	ㄴ	ㄹ[ㄴ]
ㄷ	ㄷ	ㄷ[ㄷ]		ㄹ	ㄷ	ㄹ[ㄷ]
ㄹ	ㄹ	ㄹ[ㄹ]		ㄹ	ㄹ	ㄹ[ㄹ]
ㄴ	ㄴ	ㄴ[ㄴ]		ㄹ	ㄴ	ㄹ[ㄴ]
ㄷ	ㄷ	ㄷ[ㄷ]		ㄹ	ㄷ	ㄹ[ㄷ]

위에 제시된 겹받침의 발음에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① ‘ㄹ’은 기본적으로 [ㄹ]로 발음되는데, 동사 ‘뵈(다)」「뵈(따)」의 경우에는 [비]로 발음한다. 그리고 ‘뵈(다)」는 [널(따)]로 발음되는데, ‘뵈죽하다[뵈쭈카다], 뵈똥글다[뵈똥글다]」만은 [비]로 발음한다.
- ② ‘ㄹ’은 명사와 용언 모두에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ㄱ]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경우에 ‘-고, -게」와 같이 ‘ㄱ」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말(게)[말(게)], 물(고)[물(고)], 일(쥔)다[일(쥔)다]」처럼 어간의 겹받침을 [ㄹ]로 발음한다. 그러나 ‘닭(고)기, 닭(과)」 같이 체언의 경우에는 항상 [ㄱ]로 발음한다. 겹자음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앞자음은 앞 음절에 그대로 남아 소리 나고, 뒷자음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앉(아)」는 [안(자)]로 발음된다.

[보충심화] 받침발음과 연음
<p>형태소의 끝 자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조사, 접미사가 연결 되는 경우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자리를 옮겨 발음한다(웃을 [오술], 밭에서 [바테서]). 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자음 하나를 탈락시키지 않고, 두 받침 모두를 발음한다. 첫 번째 받침은 첫음절의 받침에서 소리 나고, 두 번째 받침은 다음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된다(값을 [갑술], 흙에[흙(게)]). 그러나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안, 앞, 아래, 위, 있다, 없다」 등)가 연결될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하지 않고, 먼저 대표음으로 바꾼 후에 연음한다(웃 안[오단], 꽃 위[꼬뒤]). 그러나 ‘맛있다」와 ‘멋있다」의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해서 발음해도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맛있어요」는 [마시썌요]와 [마디썌요] 둘 다가 맞는 발음이다.</p>

(2) 겹받침 발음 교육의 실제

겹받침의 발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두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한글의 자모 순서 중 앞에 있는 자음이 남아 소리 나고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ㄹ’의 경우 한글 자모 순서에서 ‘ㄱ」가 ‘ㄹ」보다 앞에 있으므로 ‘ㄱ」가 소리 난다고 설명한다. 다만 ‘ㄹ, ㄹ」의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한글의 자모 순서를 알기 전까지는 해당하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아래와 같이 빨간 펜으로 소리 나는 자음에 ○표를 해 가며 익숙해지도록 한다.



- ① 교사가 겹받침이 들어 있는 낱말을 학습자에게 들려주고 따라하도록 한다. 독립형태소인 체언류부터 학습하고 용언류를 학습한다.

가. 값, 녀, 몫, 닭, 흙
 나. 앓다, 넓다, 없다, 짧다
 다. 굽다, 삶다, 젊다
 라. 읽다, 늙다, 맑다, 밝다 : 읽고, 늙고, 맑고, 밝고
 마. 밟다, 넓적하다

- ② 겹자음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앞자음은 앞 음절에 그대로 남아 소리 나고, 뒷자음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됨을 익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습한다.

가. 값이, 흙을, 몫이
 나. 앓아, 넓어, 없어요, 짧아요
 다. 굽어요, 젊어요, 읽어요, 늙어요, 맑아요, 밝아요

- (3) 낱말 및 어절 단위로 겹받침의 발음 연습을 한 후 문장을 통해 연습함으로써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어디에서 **왔**어요?
 나. 호영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요.

4.4.3. 받침 ‘ㅎ’의 발음 교육 방안

(1) 받침 ‘ㅎ’ 발음의 특성

‘ㅎ’는 어두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쉽게 탈락되거나 다른 소리와 합하여져 하나의 소리로 축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ㅂ,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 [ㄱ, ㄷ, ㅍ, ㅊ]로 발음된다. 그러나 모음이 연결될 때에는 받침 ‘ㅎ’가 탈락한다. ‘ㄴㅎ, ㄹㅎ’와 같이 겹자음을 가진 받침의 경우에는 ‘ㅎ’는 탈락하고, 첫 자음만 남아 앞 음절의 받침으로 발음된다.

기저형	발 음	기저형	발 음
놓고	[노코]	낳은	[나은]
종던	[조턴]	놓아	[노아]
쌓지	[싸치]	쌓이다	[싸이다]
많고	[만코]	많이	[마니]
닿지	[달치]	싫어도	[시러도]

그러나 ‘ㅎ’가 받침이 아니라 어두에 오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ㅎ] 그대로 발음된다(예, 하늘[하늘], *[아늘], 호랑이[호랑이], *[오랑이]). 또한 앞 음절의 받침이 ‘ㄱ(ㄷ), ㄷ, ㅂ(ㅍ), ㅈ(ㅊ)’이고 뒤 음절의 초성이 ‘ㅎ’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격음으로 발음된다(예, 먹히다[머키다], 좁히다[조피다]).

(2) 받침 ‘ㅎ’ 발음 교육의 실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ㅎ’ 발음은 다른 소리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복잡한 이 소리의 발음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먼저 초급에서는 용언을 중심으로 가르치도록 한다. 어간의 ‘ㅎ’ 받침과 어미의 평음이 결합하여 격음화가 되는 경우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탈락하는 경우를 먼저 가르치도록 하고, 나머지 경우는 해당하는 어휘가 나올 때 가르치는 것이 좋다.

- ① 관련 어휘를 발음하기 전에 ‘ㄱ, ㄷ, ㅂ, ㅈ’가 해당하는 평음과 ‘ㅎ’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소리임을 다시 확인한다.

ㄱ	=	ㄱ	+	ㅎ
ㄷ	=	ㄷ	+	ㅎ
ㅂ	=	ㅂ	+	ㅎ
ㅈ	=	ㅈ	+	ㅎ

- ②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어휘로 다양한 ‘ㅎ’의 발음을 연습한다. 교사가 받침 ‘ㅎ’가 들어 있는 낱말을 학습자에게 충분히 들려주고 따라하도록 한다.

가. 하늘, 향기, 한 개, 헌 옷, 호랑이
 나. 어떻게, 넣고, 좋겠네, 많고, 괜찮지
 다. 좋아요, 놓아요, 날아요
 라. 만형, 입학, 식후, 백화점
 마. 먹히다, 좁히다, 꽃히다, 밝히다, 넓히다, 얹히다
 바. 끓이고, 많이
 사. 고향, 성함, 천천히, 결혼, 은행, 삼행시

③ 그런 다음 문장을 통해 연습함으로써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가. 생일 축하해요.
 나. 극장에 어떻게 가요?
 다. 음식을 잘못해서 남편한테 미안해요.

4.5. 한국어 동화현상의 교육 방안

4.5.1. 한국어의 비음화 교육 방안

(1) 한국어 비음화의 특성

동화란 인접한 음끼리 닮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으로 한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인접해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소리 나는 비음화가 널리 일어난다.

[보충심화] 동화 현상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 모든 언어라고 자음 간에 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해 있는 인접한 두 자음끼리 아무런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pop music’이 나 ‘nickname’을 영국 사람들은 [팝뮤직], [닉네임]으로 발음하고, 한국 사람들은 [팜뮤직], [닝네임]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역으로 영국인들의 경우에는 ‘국물’과 ‘입력’을 글자 그대로 발음하려고 한다.

① 장애음 + 비음의 경우

장애음 뒤에 비음이 올 경우 장애음은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뀐, 다시 말해 비음 다음에 장애음이 올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 + 물 ⇨ [궁물] 임 + 금 ⇨ [임금]

② 비음 + 유음의 경우

비음 다음에 유음이 오는 경우 유음이 비음 [ㄴ]로 발음된다. 그러나 유음 다음에 비음이 오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 + 리 ⇨ [정니] 얼 + 마 ⇨ [얼마]

③ 장애음 + 유음의 경우

장애음 뒤에 유음이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음운 변화가 일어난다. 즉, 장애음은 같은 위치에 서 나는 비음으로 소리 나고, 유음은 비음인 [ㄴ]로 소리 난다. 하지만 유음 다음에 장애음이 오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 + 력 ⇨ [궁녁] 얼 + 굴 ⇨ [얼굴]

(2) 비음화 교육의 실제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화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바르게 발음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음화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렵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장애음 + 비음’, ‘비음 + 유음’, ‘장애음 + 유음’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① 아래와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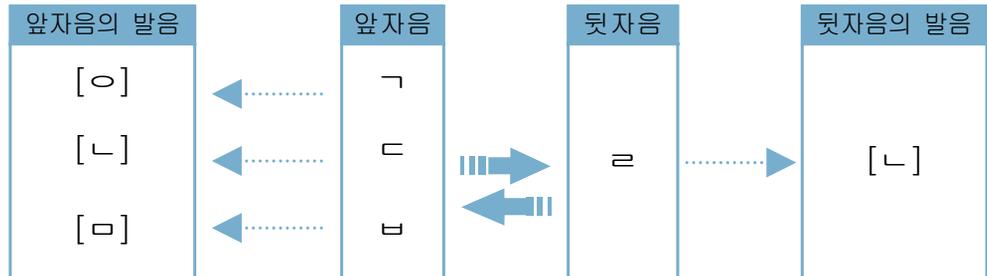
〈장애음 + 비음의 동화〉



〈비음 + 유음의 동화〉



〈장애음 + 유음의 동화〉



② 비음화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낱말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이 때 순서를 바꾸면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낱말을 예로 함께 제시하는 것도 좋다.

가. 국물, 국난, 앞마당, 한국말, 부엌문, 백년, 숙녀, 국민, 집모양, 맘머느리, 십리, 집문, 잡는, 앞날, 밥맛, 없는, 굶는다 : 임금, 안개, 연기, 전등, 연필,
 나. 음력, 대통령, 승리, 심리, 담력, 궁리, 정리, 종로
 다. 국립, 압력, 입력, 십리, 협력, 법률, 독립, 국력 : 일기, 얼굴, 알밥

(3) ‘날말 읽기’ 연습이 끝난 후, 이를 다시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나. 총각무를 깨끗이 씻어라.
 다.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4.5.2 한국어의 유음화 교육 방안

(1) 한국어 유음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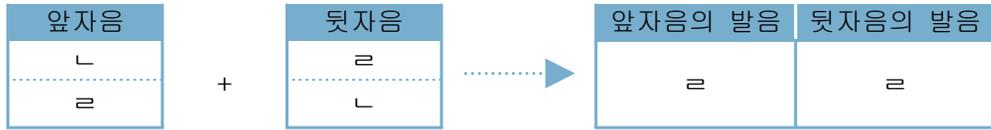
한국어에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영어 단어 Henry, on-line을 각각 [헨리], [올라인]과 비슷하게 발음하기도 한다.

ㄴ + ㄹ		ㄹ + ㄴ	
기저형	발음	기저형	발음
난로	[날로]	물난리	[물랄리]
신라	[실라]	줄넘기	[줄럼끼]
진리	[질리]	설날	[설랄]
전라도	[절라도]	할네	[할레]

(2) 유음화 교육의 실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순서에 상관없이 ‘ㄴ’이 ‘ㄹ’을 만나기만 하면 [ㄹ]로 발음 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①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유음화의 원리를 이해시킨다.



② 교사가 유음화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킨다.

가. 줄넘기, 천리, 신라, 진리, 편리, 대관령
 나. 설날, 줄넘기, 칼날, 물난리

③ ‘낱말 읽기’에서 연습한 낱말들을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나. 컴퓨터는 아주 **편리**하다.
 다.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꼭 필요해요.

4.5.3. 한국어 구개음화의 교육방안

(1) 한국어 구개음화의 특성

받침 ‘ㄷ, ㅌ(ㅍ)’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기저형	발음
굳이	[구지]
미닫이	[미다지]
같이	[가치]
밭이	[바치]
닫히다	[다치다]
묻히다	[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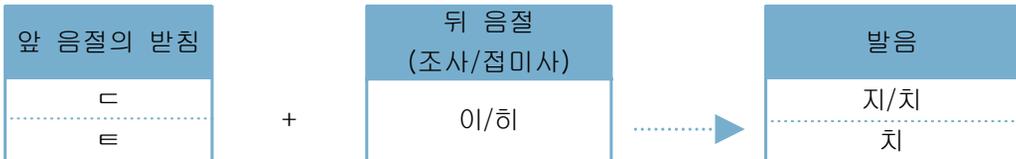
[보충심화] 구개음화의 환경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구개음화는 ‘이’를 포함하는 말 중에서 조사 ‘이’와 접미사 ‘이’가 결합할 때에만 일어난다. ‘잔디, 마디’처럼 단일어 내에서나 ‘밭 일, 밭이랑’ 등과 같이 합성어의 경우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 구개음화 교육의 실제

구개음화는 많은 언어에서 널리 일어나는 음운현상이므로 교육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음의 변화 그 자체보다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①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시킨다.



② 다음에는 교사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킨다.

가. /ㄷ/ + 이 → [지]: 굳이, 맏이, 턱받이
 나. /ㅌ/ + 이 → [치]: 같이, 술이, 밭이, 밭이
 다. /ㄷ/ + 히 → [치]: 닫히다, 붙이다, 묻히다

③ 다음에는 낱말 차원에서 연습한 낱말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이용하여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봄으로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우리 남편은 **맏**이에요.
 나. **같이** 시장에 가고 싶어요.
 다.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
 라. **밭**이 넓어서 혼자서는 일을 다 못해요.

4.6. 한국어 경음화의 교육 방안

4.6.1. 한국어 경음화의 특성

필수적 경음화와 수의적 경음화로 나뉜다. 필수적 경음화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ㅅ, ㅅ, ㅅ, ㅅ, ㅅ), ㅂ(ㅂ, ㅂ, ㅂ,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ㅅ’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일컫는다.

기저형	발음
국밥	[국뽵]
옷고름	[온꼬름]
꽃다발	[꼰따발]
옆집	[엿집]
국수	[국쑤]
깍두기	[깍뚜기]
갑자기	[갑짜기]

수의적 경음화는 앞 글자의 받침이 장애음이 아닌 유성음, 즉 [ㄴ, ㄹ,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ㅅ’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일컫는다. 수의적 경음화는 필수적이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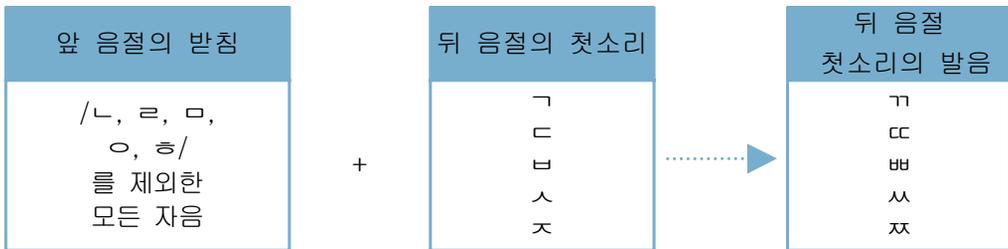
수의적 경음화의 조건	예
어간 받침 ‘ㄴ(ㄴ), ㄷ(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꺼안다[꺼안따], 앓고[안꼬] 닭고[담꼬], 젊지[점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말살[말쌀], 갈증[갈짱] 물질[물짚], 발전[발쩐]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술], 만날 사람[만날싸람] 할 수는[할쑤는], 갈 곳[갈꼰]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낱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ㅅ’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손-재주[손째주], 아침-밥[아침뽵] 잠-자리[잠짜리], 눈사람[눈싸람] 발-바닥[발빠닥], 손-바닥[손빠닥]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ㅅ’도 된소리로 발음한다(예, 할결[할결], 할수록[할쑤록], 할게[할게]). 그러나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ㅂ’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예, 발견*[발견], 불발*[불뽵]).

4.6.2. 한국어 경음화 교육의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경음화 현상을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들이 경음화의 환경을 이해하여 바르게 발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경음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듣고 따라하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1)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원리를 이해시킨다. 수의적 경음화의 경우에는 일어나는 환경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의적 경음화의 경우에는 일어나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함으로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2) 다음에는 교사가 경음화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킨다.

가. ‘ㅂ’ + ‘ㅂ, ㄷ, ㅈ, ㅅ, ㄱ’ → [ㅃ, ㄸ, ㅉ, ㅆ, ㄲ]: 앞집, 접시, 잡지, 입국, 답장
 나. ‘ㄷ’ + ‘ㅂ, ㄷ, ㅈ, ㅅ, ㄱ’ → [ㅃ, ㄸ, ㅉ, ㅆ, ㄲ]: 꽃집, 옷장, 돌솥밥, 곧장, 몇 시
 다. ‘ㄱ’ + ‘ㅂ, ㄷ, ㅈ, ㅅ, ㄱ’ → [ㅃ, ㄸ, ㅉ, ㅆ, ㄲ]: 국수, 걱정, 국제, 식당, 학생, 책상, 축구, 국밥, 학비, 학부모

- (3) 다음에는 연습한 낱말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이용하여 연습하여 봄으로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그 집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나. 정원 식당에서 **돌솥밥**을 팔아요.
 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4.7. ‘ㄴ’ 첨가의 교육 방안

4.7.1. ‘ㄴ’ 첨가의 특성

합성어나 파생어 등 복합어의 경계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기저형	발음
부엌 + 일	[부엌닐]
한 + 여름	[한녀름]
맨 + 입	[맨닙]
눈 + 요기	[눈뇨기]
색 + 연필	[생년필]

위와 같이 ‘ㄴ’이 첨가된 말은 다시 앞에 나오는 자음과 인접하게 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꽃 + 잎’은 ‘꽃 + 잎 → 꽃냠 → 꼴닙 → [꼴닙]’의 과정을 거쳐 [꼴닙]으로 소리 난다.

[보충 심화] ‘ㄴ’ 첨가와 두음법칙

/ㄴ/음 첨가의 조건 중의 하나가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와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이러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갖는 음운현상이 있는데 두음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즉, ‘닉명(匿名), 낭반(兩班), 녀성(女性), 뇨도(尿道), 뉴대(紐帶)’ 등과 같은 말들의 /ㄴ/가 어두에서 탈락한다. 그리고 ‘리발(理髮) → 이발, 리자(利子) → 이자, 리해(理解) → 이해, 량심(良心) → 양심, 료금(料金) → 요금, 료리(倫理) → 윤리’에서와 같이 /ㄹ/ 두음은 같은 환경에서 /ㄴ/로 바뀌지 않고 탈락한다. 동일한 모음 앞에서 어두의 경우는 /ㄴ/가 탈락하고(두음법칙), 합성어나 파생어의 뒷말의 경우는 /ㄴ/가 첨가된다(‘ㄴ’ 첨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4.7.2. ‘ㄴ’ 첨가 교육의 실제

‘ㄴ’ 첨가 현상은 발음에는 영향을 주지만 ‘얌니, 윷니, 아랫니, 머릿니’ 등과 같은 몇몇 낱말을 제외하고는 표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ㄴ’ 첨가는 무엇보다도 일어나는 환경을 알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ㄴ’이 첨가되고 나서 아무런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일어나는 경우를 나누어 학습하는 게 좋다.

① 교사가 ‘ㄴ’ 첨가가 일어나는 낱말 카드를 제시하고 여러 번 따라하도록 시킨다.

‘ㄴ’ 첨가 외에 다른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림일기, 논일, 맨입, 숨이불, 직행열차, 콩엿, 가랑잎, 담요, 한여름, 식용유
첨가된 ‘ㄴ’가 앞 자음의 비음화를 일으키는 경우	부엌일, 색연필, 늦여름, 낮익은, 꽃잎
첨가된 ‘ㄴ’가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발음되는 경우	서울역, 휘발유, 물엿, 술잎, 할 일, 열여덟

② 연습한 낱말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이용하여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봄으로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앞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나. **늦여름** 더위가 대단하다.
 다. 고기를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어요.

4.8. 한국어의 억양 교육 방안

4.8.1. 한국어 억양의 특성

한국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초분절음소는 문장 억양이다. 특히 ‘집에 가’와 같은 비격식체 문장의 경우 문미억양에 따라서만 문장의 종류가 구별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평서문이라고 하더라도 억양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예를 들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와 부드럽게 확인하듯이 하는 경우의 억양은 전혀 다르다. 의문문의 경우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도록 질문하는 판정 의문문의 경우와 의문사를 포함하는 설명 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억양이 서로 다르다. 명령문과 청유문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어에서는 문장 억양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집에 가.

- (1) 집에 가. (의문문)
- (2) 집에 가. (평서문)
- (3) 집에 가. (명령문, 명령하듯)
- (4) 집에 가. (청유문, 부드럽게)

※ 화용론적 억양 교육

A : 영미야, 어디 가니?

B : 은행.

A : 지금 은행 문 a) **닫았을걸**. 지금 4시30분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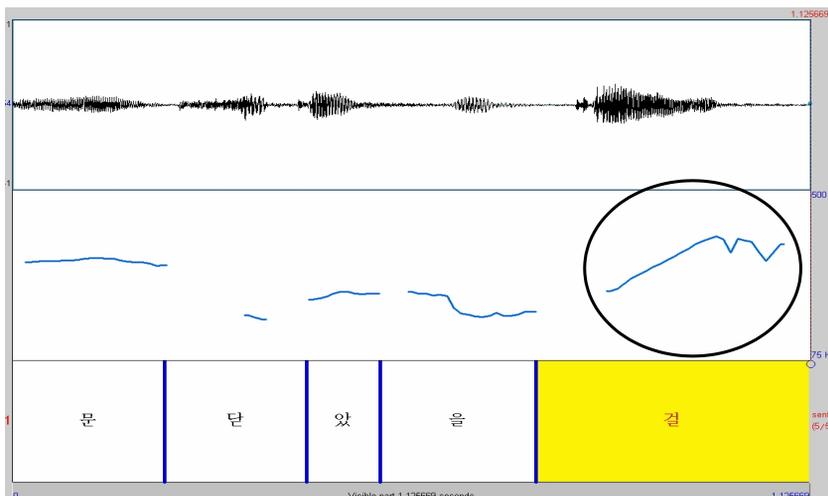
<잠시 후>

A : 은행 갔다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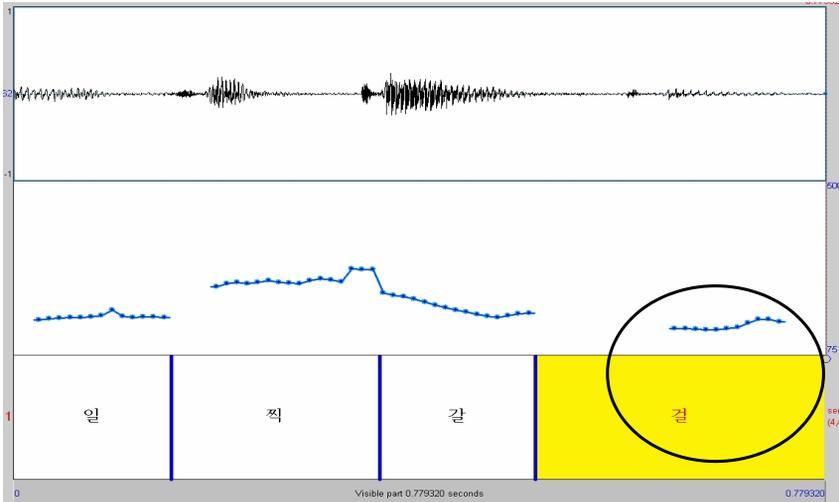
B : 응, 그런데 은행 문 닫았더라. 조금 더 일찍 b) **갈걸**.

A : 내일은 수업 끝나고 바로 가.

<그림 1> 추축: 닫았을 걸



〈그림 2〉 후회: 일찍 갈 걸



4.6.2. 억양 교육의 실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장 억양은 문미에서 문장의 의미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억양은 특히 화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발화가 나타내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일일이 세분화하여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문장의 유형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문장 억양을 연습하면서 서서히 익혀 나가도록 한다.

(1) 억양 듣기 훈련을 한다.

강세, 리듬, 억양 등을 학습할 때는 구두로 연습하기 전에 먼저 실제적인 자료를 듣는 연습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 이때 교사가 억양이 다른 문장을 들려주면 학습자가 이를 듣고 문장의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문장 유형에 표시를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문 장	억 양	평서문	의문문
밥 먹었어	→	√	
집에 가요	↗		√
벌써 집에 갔어	↗		√

(2) 교사가 억양 곡선이 그려진 문장들을 학습자에게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를 발음해 보게 한다. 이 때 동일하게 표현되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억양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학습자를 지도해야 한다.

지금 공부해요?	
네, 공부해요.	

이밖에도 역할극 하거나 대화문을 듣고 등장인물의 표정 알아맞히기 활동 등으로 한국어의 억양을 교육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정(1999a), 영어모국어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방안, 한국어교육 10-2, 153-17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선정(1999b), 어말 음절구조의 특성과 한국어 교육적 접근, 언어과학연구 24, 23-40, 언어과학회.
- 김선정(2004), 숙달도 향상을 위한 한국어 파닉스 연구, 언어과학연구 29, 45-66, 언어과학회.
- 김선정(2005),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남기심·이상익·홍재성 외(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 방송 대학교 출판부.
- 제갈명(2010), 한국어 억양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재영 외(2003), 「한국어 발음교육」, Hollym.
- 허 용, 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박이정.
- 허 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개론」, 박이정.
- 허 용(2005), 한국어교육을 위한 음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허 용, 김선정 역(2005), 「음운론 이해」, 도서출판 동인.
- Hedge, T.(2000),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Language Classroom, Oxford University Press.
- Kelly, G.(2002), *How to Teach Pronunciation*, Longman.
- Lightbown, P. M. & Spada, N.(2006),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강의 교재 - 러시아 모스크바 -



●
●
●

지금 쓰이는 말 - 현대 한국어 어휘



조남호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지금 쓰이는 말 - 현대 한국어 어휘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 한국어를 구성하는 말들

- 고유어: 한국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
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하늘, 땅, 손, 발, 다리

- 한자어: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말.
 - 중국어 계통: 가정(家庭), 고향(故鄉), 농사(農事), 부모(父母), 효도(孝道)
 - 일본어 계통: 미술(美術), 철학(哲學), 시장(市場), 입구(入口), 역할(役割)
 - 한국 고유 한자어: 감기(感氣), 삼촌(三寸), 복덕방(福德房), 사돈(查頓)

- 외래어: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온 말.
 - 예) 라디오, 초콜릿, 소파, 주스, 가스, 버스, 비스킷, 인터뷰, 팬-영어
 - 예) 멘세비키, 보드카, 볼세비키, 콜호스, 토치카, 페치카, 빨치산-러시아어
 - 예) 데뷔, 레스토랑, 마요네즈, 몽타주, 비데, 카바레-프랑스어
 - 예) 깁스, 노이로제, 알레르기, 이데올로기-독일어
 - 예) 마피아, 브라보, 소나타, 소프라노, 솔로, 스파게티, 피자-이탈리아어
 - 예) 게이샤, 마호병, 마후라, 보루, 스시, 양꼬-일본어
 - 예) 배갈, 지단-중국어

□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사용 모습

○ 사전에 수록된 말 중에서 한자어가 제일 많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계
111,156(25.2%)	252,278(57.3%)	24,019(5.5%)	53,141(12.0%)	440,594

○ 일상에서는 고유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계
54.11%	24.67%	1.96%	19.26%	100%

※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의 순서

것, 하다, 있다, 되다, 수(할 ~ 있다), 나, 그, 없다, 많다, 사람, 우리, 이, 그, 아니다, 보다, 등(等), 때, 거(그 책은 내 ~다), 같다, 주다, 대하다(對), 가다, 년(이 ~), 한(~ 사람), 말(재미있는 ~), 일(~이 많다), 이, 때문, 말하다, 위하다(爲), 그러나, 오다, 알다, 씨(氏, 최 ~), 그렇다, 크다, 또, 일(日, 삼 ~), 사회(社會), 많다, 안(~ 먹다), 좋다, 더, 받다, 그것, 집, 나오다, 따르다, 그리고, 문제(問題), 그런, 살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못하다, 생각하다, 모르다, 속, 만들다, 데, 두, 앞, 경우(境遇, ~가 아니다), 중(中), 어떤, 잘, 그녀, 먹다, 자신(自身), 문화(文化), 원(화폐 단위, 백 ~), 생각, 어떻다, 명(名, 열 ~), 통하다(通), 그러다, 소리, 다시, 다른, 이런, 여자(女子), 개(個, 한 ~), 정도(程度), 뒤, 듣다, 다, 좀, 들다, 싶다, 보이다, 가지다, 함께, 아이, 지나다, 많이, 시간(時間), 너

○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짝이 되기도 한다.

- 고유어와 한자어의 예

예) 시골-촌(村), 손수-친(親)히, 아버지-부친(父親), 얼굴-안면(顔面), 이-치아(齒牙), 집-댁(宅), 술-약주(藥酒)

- 고유어와 외래어의 예

예) 열쇠-키(key), 목도리-머플러(muffler), 치마-스커트(skirt), 춤-댄스(dance), 단추-버튼(button)

- 한자어와 외래어의 예

예) 면접(面接)/회견(會見)-인터뷰(interview), 할인(割引)-세일(sale), 구호(口號)-슬로건(slogan),
예절(禮節)-에티켓(etiquette), 충격(衝擊)-쇼크(shock)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예

예) 틈-간격(間隔)-갭(gap), 잔치-연회(宴會)-파티(party), 빛깔-색채(色彩)-컬러(color), 말미-
휴가(休暇)-바캉스(vacance), 계집-부인(夫人)-마담(madame)

- 고유어 하나에 한자어가 여러 개가 짝을 이루기도 한다.

예) 생각-사고, 사색, 사유, 사모, 사려, 사상, 명상, 묵상, 구상

예) 고치다-수리하다, 치료하다, 시정하다, 수정하다, 개정하다, 변경하다, 개혁하다, 교정하다

□ 최근에 생긴 말

○ 최근에 자주 쓰이는 말

- 생얼: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
- 얼짱: 얼굴이 예쁘거나 잘 생긴 사람
- 얼짱: ‘얼짱’의 반대. 얼굴이 못생긴 사람
- 식스팩: 팩을 여섯 개 붙여 놓은 것 같은 배 근육.
-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 빵셔틀: 강요를 당해 빵이나 담배 등을 사다 주는 학생
- 스펙: 취직에 필요한 자격이나 조건
- 샐러던트: 직장인(샐러리맨)에 다니면서 학생(스튜던트)처럼 틈틈이 공부하는 사람
- 이태백: 이십 대 태반이 백수
- 사오정: 45세 정년
- 올레길: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걷기에 좋도록 만든 길 참고)둘레길
- 다문화 가정: 문화(국적)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룬 가정
-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낮음
-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많은 사회
- 인증샷: 말이나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사진
- 댓글: 인터넷 게시판에서 남의 글에 자기 의견으로 다는 글
- 악플: 남의 글에 욕설, 비방 등 나쁜 내용으로 의견을 다는 글. 악성 댓글
-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검색 등 고급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 알파걸: 학업, 운동 등 모든 면에서 남성에게 뒤지지 않는 여성
- 골드미스: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0~40대의 미혼 여성

- 슈퍼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 금추: 보통보다 비싼 배추 참고)김치/금치

○ 줄여서 만든 말

-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것), 엄친아(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딸, 돌싱(돌아온 싱글), 먹튀(먹고 튀다), 놀토(노는 토요일)
- 남친(←남자친구), 여친(←여자친구)
- 셀카(셀프 카메라), 디카(디지털 카메라), 몰카(몰래 카메라)

○ 말을 만드는 데 자주 쓰이는 말

- -족(族): 투잡족(돈 버는 일 두 가지를 하는 사람), 고시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공시족(公試族,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먹물족(배움이 많은 사람), 찜질족(찜질을 좋아하는 사람)
- -파라치(parazzi): 스파라치(쓰레기+파파라치), 소파라치(쇠고기 유통 절차를 위반한 사람을 적발하는 사람), 학파라치(학원 영업 시간을 위반한 사람을 적발하는 사람)
- -녀(女): 명품녀(비싼 물건을 좋아하는 여자), 신상녀(새로 나온 상품만 좋아하는 여자), 품절녀(결혼한 여자), 완소녀(완전 소중한 여자)
- -남(男): 짝벌남(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남자), 훈남(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멋진 남자), 품절남, 완소남
- -데이(day):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블랙데이(4월 14일), 빼빼로데이(11월 11일), 삼겹살데이(3월 3일)
- -룩(look): 커플룩(연인이나 부부가 비슷하게 맞추어 입은 옷차림), 모자룩(엄마와 아들이 비슷하게 맞추어 입은 옷차림)
- -짱: 얼짱, 몸짱, 맘짱, 쌤짱
- -따: 왕따, 은따(은밀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전따(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진짜(진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 -당: 초딩(초등학생), 중딩, 고딩, 직딩(직장인)
- -방(房): 노래방, 전화방
- -맨(man): 증권맨, 현대맨, 테스트맨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강의 교재 - 러시아 모스크바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이운영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이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0. 한글의 특징

한글은 소리글자이다. 로마자, 키릴문자, 아랍문자, 그리스문자, 가나문자 등도 소리글자이다. 소리글자가 아닌 것으로는 중국에서 쓰는 한자가 있는데 한자는 뜻글자이다.

한글은 소리글자이지만 다른 소리글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소리글자가 철자를 나열해서 쓰는 반면, 한글은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을 한 음절에 모아서 쓴다.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초성과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성은 없을 수도 있다.

한글에는 초성에 쓰일 수 있는 글자가 19개 있다. 이 중에서 ‘ㅇ’은 소리는 없이 단지 자리만 표시해 준다. 이는 초성에는 반드시 글자가 와야 한다는 위의 규칙 때문이다. 따라서 ‘아’라는 글자는 그냥 모음 ‘ㅏ’의 소리만 내면 된다. 나머지 18개는 다 제 소리를 나타낸다. 중성은 받침으로 적는다. 종성에 오는 글자는 27가지이지만 소리는 7가지로만 난다.

종성 소리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받침 글자 : ㄱ,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홀받침 16개)

ㄷ, ㄸ, ㄴㅇ, ㄹㅇ, ㄹㅇ, ㄹㅇ, ㄹㅇ, ㄹㅇ, ㄹㅇ, ㄹㅇ, ㄹㅇ (겹받침 11개)

1. ‘한글 맞춤법’이란 무엇일까?

한국어를 배울 때 받아쓰기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받아쓰기 연습을 통해 “달기모이를먹고 이씨요”라고 읽어 주는 말을 (1)처럼 쓰면 안 되고 (2)처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1) 달기 모이를 먹고 이씨요.
- (2) 닭이 모이를 먹고 있어요.

선생님이 불러 준 말을 (1)처럼 쓰지 않고 (2)처럼 쓰도록 하는 법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에서 (2)처럼 적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달기’라고 소리 내면서 ‘닭이’로 적는 것은 ‘달기’로 적는 것보다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이다. ‘닭’으로 형태를 고정시켜 ‘닭이, 닭을, 닭도, 닭만’과 같이 적으면 ‘닭’이라는 같은 단어가 들어간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달기, 달글, 닥또, 당만’으로 적으면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 또 ‘닭이’의 ‘이’도 형태를 고정시켜 ‘닭이, 하늘이, 꽃이, 몸이’와 같이 적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달기, 하느리, 꼬치, 모미’로 적으면 ‘이’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닭’과 ‘이’로 표기를 고정함으로써 글을 읽을 때 훨씬 손쉽게 의미를 알 수 있다.

‘먹꼬’를 ‘먹고’로 적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먹고, 먹어, 먹으니, 먹는’과 같이 ‘먹’의 형태를 고정시켜 적는 것이 ‘먹꼬, 머거, 머그니, 멍는’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각기 다른 형태로 적는 것보다 알아보기가 쉽다.

- (3) ㄱ. 먹꼬, 머거, 머그니, 멍는
- ㄴ. 먹고, 먹어, 먹으니, 먹는

‘이씨요’ 또한 ‘있어요’로 적으면 ‘있’이 ‘있고, 있으니, 있는’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어요’가 ‘먹어요, 싫어요, 멀어요’의 ‘어요’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4) ㄱ. 이씨요, 인는, 이꼬 / 머거요, 시러요, 머러요
- ㄴ. 있어요, 있는, 있고 / 먹어요, 싫어요, 멀어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이다.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이것을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다.

- (5) ㄱ.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
ㄴ. 닭▽이모▽이를▽먹고있▽어요.

2. ‘표준어’란 무엇일까?

표준어는 여러 지역의 말 중에서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쓰도록 정한 말을 가리킨다.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준어가 필요한 이유는 말이 지역에 따라 달라서 심한 경우에는 한 나라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깍두기’를 담가 한국의 여러 곳으로 보낼 경우 ‘깍두기’라고 쓰인 항아리를 보고 무엇이 들었는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깍두기’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기 때문이다.

- (6) 깍뎨기(강원), 깍닥김치(경남), 깍뎨지(경북), 나박지(전남), 뎨깍지(전북), 깍뎨기(제주), 까뎨기(충남), 뎨뎨기(충북), 나박디(평북)…….

이처럼 서로 차이가 나는 말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모두에게 배우도록 한 것이 표준어이다. 누구나 표준어를 배워서 쓰게 되면 말이 달라서 대화를 못하는 일이 없어지고 한 나라 사람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 또한 표준어를 쓰는 것은 교양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을 표준어로 삼았으므로 표준어를 쓰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이 가진 여러 특성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표준어이고 어떤 말이 비표준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사전에는 ‘달갈’이 표준어이고 ‘달구알’은 비표준어, ‘무’는 표준어, ‘무우’는 비표준어, ‘나무’는 표준어, ‘낭구’는 비표준어라는 정보가 들어 있다. 누구나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말이 표준어이고 어떤 말이 비표준어인지 쉽게 알 수 있다.

3.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익히기

가엿다/가염다

- (1) ㄱ. 부모를 잃은 가엿은 아이
- 나. 부모를 잃은 가여운 아이

※ ‘가엿다/가염다’ 모두 표준어다. ‘가엿+~~은~~→가엿은’과 ‘가염+~~은~~→가여운’이 모두 가능하다.

거친/*거칠은

- (1) ㄱ. 하늘을 나는 비행기
- 나.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
- (2) ㄱ. 거친 별판에 푸른 솔잎처럼
- 나. *거칠은 별판에 푸른 솔잎처럼

※ ‘ㄹ’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그을+~~은~~’, ‘날+~~은~~’, ‘녹슬+~~은~~’은 ‘거친’, ‘그은’, ‘나는’, ‘녹슨’이 된다. 흔히 한국 사람들이 ‘*날으는’, ‘*거칠은’이라고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놀이터에서 노는’, ‘칼을 가는’의 경우,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세/*금새

- (1)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일이 금세 끝났어.

※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에 이끌려 ‘*금새’라고 많이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깨끗이/*깨끗히

- (1) ‘-이’로 적는 경우
 - ① 간간이, 겹겹이, 나날이, 째째이 (첩어 명사 뒤)
 - ② 남짓이, 버젓이, 번듯이, 지긋이 (‘ㅅ’받침 뒤)
 - ③ 깊숙이, 고즈넉이, 끔찍이, 가뜩이, 길쭉이, 멀찍이 (‘ㄱ’받침 뒤)
 - ④ 가벼이, 괴로이, 쉬이, 외로이 (‘ㅂ’불규칙 용언 뒤)

⑤ 같이, 굳이, 많이, 실없이 (‘-하다’가 붙지 않은 용언 어간 뒤)

⑥ 곰곰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부사 뒤)

(2) ‘-히’로 적는 경우

급히, 엄격히, 곰곰히, 답답히 (‘-하다’가 붙는 어간 뒤)

나무꾼/*나뭇꾼/*나뭇꾼

(1) 나무꾼, 사기꾼, 일꾼 / *나뭇꾼, *사깃꾼, *일꾼

(2) 맛깔, 빛깔, 성깔, 젓갈 / *땃갈, *빛갈, *성갈

(3) 거적때기, 귀때기, 발꿈치 / *거적대기, *귀대기, *발꿈치

넓적다리/*넙적다리

(1) 무릎 넓적하게 썰어 깎두기를 담갔다.

(2)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넙죽 받아먹는다.

※ ‘넓다’와 의미상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표기가 결정된다.

눈곱/*눈꼽

※ ‘눈곱’은 ‘눈’과 ‘곱’으로 나누어지는 말이다. [눈곱]으로 소리 나지만 ‘눈꼽’으로 적는다.

늘이다/늘리다

(1) ㄱ.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

 ㄴ.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

※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같이 쓰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더욱이/*더우기

(1) ㄱ. 일찍이 문명을 꽃 피운 나라/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

 ㄴ. *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

(2) ㄱ. 오늘은 반드시 일을 끝내자.

- ㄴ. 종이에 금을 반듯이 그어라.(←반듯하다)
- (3) ㄱ. 눈을 지그시 감았다.
- ㄴ.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지긋하다)

※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 관련이 있으므로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고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로 적는다.

돋/*똥

- (1) ㄱ. 첫 돋을 맞은 아이
- ㄴ. 개교한 지 스무 돋이 지난 학교

※ ‘돋’과 ‘돋’은 (1ㄱ)과 (1ㄴ)으로 서로 구분해서 쓰던 것을 ‘돋’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인 경우다.

되라/돼라

- (1) ㄱ. 부지런한 사람이 {돼/돼라}.
- ㄴ. 부지런한 사람이 {*되/되라}.
- ㄷ.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된다. ‘되+-었다→됐다’, ‘되+-어서→돼서’가 그러한 경우다. ‘되라’는 ‘되+-(-으)라’의 구조이므로 ‘되+-어라’의 구조인 ‘돼라’와는 구별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으)라+고)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이 돼라(되+-어라)”

-든/-던

- (1) ㄱ. 사과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ㄴ. 사과든가 배든가 마음대로 먹어라.
- ㄷ.*사과던 배던 마음대로 먹어라.
- (2) ㄱ. 어릴 때 놀던 곳/*어릴 때 놀든 곳
- ㄴ. 집이 크던지 작던지 생각이 나지 않아.

※ ‘-든’은 선택을, ‘-던’은 과거를 나타낸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있든가 가든가 뜻대로 해’는 선택의 상황이고, ‘어릴 적 살던 곳’, ‘집이

크던지 작던지 생각이 나지 않아, ‘영이가 뭐라던?’, ‘철수가 집에 있던가 (어디) 가던가’는 과거의 상황이다. ‘던’이 들어 있는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들’ 등도 모두 과거를 나타낸다.

들르다/*들리다

- (1) ㄱ.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들렸다}.
 ㄴ. 큰집에 {들른 지/*들린 지} 한참 되었다.

디뎠다/*딛었다

- (1) ㄱ. 흙탕물이라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디디--+있--+다)/*딛었다(딛--+있--+다)}.
 ㄴ.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라/*갖어라}.

※ ‘디디다’의 준말은 ‘딛다’인데 ‘딛다’에는 ‘딛고, 딛자, 딛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딛어’, ‘딛었다’, ‘딛으며’, ‘딛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비슷한 말에는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등이 있다. ‘*머물어’, ‘*머무오’는 모두 잘못이다.

-르까/*-르가

- (1) ㄱ.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ㄴ.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꼴}.
 ㄷ. 제주도로 {갈거나/*갈꺼나}.
 ㄹ. 그 일은 내가 {할게/*할께}.
 ㅁ. 이제 그만 {잘게요/*잘께요}.

※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르까’, ‘-르쏘냐’, ‘-르꼬’를 제외하고는 된 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로서/-로써

- (1) ㄱ. 대장부로서 그곳 일에 겁을 내다니!
 ㄴ.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2) ㄱ. 그는 열심히 일하므로 잘 산다.
 ㄴ.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으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의 본분’,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하다니!’가 구분된다. ‘-함으로(써)’와 ‘-하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함으로(써)’는 ‘씨’가 붙을 수 있지만 ‘-하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마라/*말아라

- (1) ㄱ. 떠들지 {마라/*말아라(←말+--아라)}.
 ㄴ. 떠들지 {마/*말아}.
 ㄷ. 떠들지 말라(←말+--으라)/떠들지 말라고 말했지?

※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으)라’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가 된다.

맞추다/맞히다

- (1) ㄱ. 퀴즈의 답을 {맞혀/*맞춰} 보세요.
 ㄴ. 답을 {알아맞힌/*알아맞춘}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ㄷ.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추어 보세요.

※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같게 하다’는 의미이고 ‘맞히다’는 ‘여럿 중에서 하나를 골라 내다’는 의미이므로 ‘퀴즈의 답을 맞히다’가 옳고 ‘퀴즈의 답을 맞추다’는 옳지 않다. ‘맞추다’는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와 같이 다른 대상과 견주어 본다는 의미다.

멋쟁이/*멋장이

- (1) ㄱ. 점쟁이, 소금쟁이, 떼쟁이, 갯쟁이
 ㄴ. 미장이, 가구장이, 도배장이, 갯장이

며칠/*몇일

- (1) 오늘이 몇 월 { *몇 일/며칠}이지?

무/*무우

※ ‘무’와 ‘무우’ 중에서 ‘무’가 표준어이고 ‘무우’는 비표준어다. ‘무우국’, ‘무우나물’ 등도 ‘뭇국’, ‘무나물’이 표준어다.

바람/*바람

- (1) 내 {바람/*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2) ㄱ.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바랬다}.
 ㄴ. 노력도 없이 성공하길 {바라니/*바래니} 되는 게 없지.
 ㄷ. 돈을 {바라서/*바래서} 한 일이 아니야.

※ ‘바라다[望]’에서 온 말이므로 ‘바라(바라+아)’, ‘바라서(바라+아서)’, ‘바랐다(바라+았다)’가 된다. ‘*바래’, ‘*바래서’, ‘*바랬다’는 옳지 않다.

뱉어/*뱉아

- (1) 침을 {뱉어라/*뱉아라}.
(2) 철수는 잠깐 {남아라/*남어라}.

※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 ㅓ’일 때는 ‘아’계열의 어미(아라, 아서, 아도, 아야, 았)가 연결되고 그 외의 모음일 때는 ‘어’ 계열의 어미가 연결된다.

벌이다/벌리다

- (1) ㄱ. 진열대에 물건을 {벌어/*벌려} 놓았다.
 ㄴ.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벌렸다}.
(2) ㄱ. 두 팔을 벌려서 아이를 맞이했다.
 ㄴ.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한다.

※ ‘벌이다’는 ‘싸움을 벌이다’, ‘일을 벌이다’, ‘좌판을 벌이다’처럼 쓰이고 ‘벌리다’는 ‘다리를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와 같이 쓰인다. ‘논쟁을 *벌리다’, ‘잔치를 *벌리다’라고 쓰는 것은 ‘벌이다’를 잘못 쓰는 것이다.

베개/*벼개

※ ‘베개’와 ‘*벼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마 팔을 베고 잠이 든 아기’와 같이 ‘베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베개’가 옳다. ‘지우다-지우개’, ‘깎다-깎개’도 같은 경우이다.

빌리다/*빌다

- (1) ㄱ.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 오너라/*빌어 오너라.}
 ㄴ. 이 자리를 {빌려/*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다/*삼가하다

- (1) 이 곳에서는 흡연을 {삼가/*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너무 선부른 판단은 {삼가는/*삼가하는} 게 좋겠다.

※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삼가하다’로 많이 쓰지만 원래가 ‘삼가다’이므로 ‘흡연을 삼가(삼가+-아) 주시기 바랍니다’로 써야 옳다.

생각건대/*생각컨대

- (1) ㄱ. {생각건대/*생각컨대} 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다.
 ㄴ. {생각단 못해/*생각탄 못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 ‘생각하건대’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ㅂ, ㅅ’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ㄴ’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 소리가 된다. ‘청하건대 → 청ㅎ건대 → 청컨대’, ‘무심하자 → 무심ㅎ자 → 무심치’와 ‘섭섭하다 → 섭섭다’와 같이 된다.

셋째/*세째

※ ‘셋째’, ‘넷째’를 ‘세째’, ‘네째’로 잘못 적기도 하지만 ‘셋째’, ‘넷째’로 적는 것이 옳다.

수-/숫-

- (1) ㄱ. 숫양, 숫염소, 숫쥐
 ㄴ.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ㄷ. 수평, 수나사, 수놈, 수소, 수은행나무…….
- ※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이다. 단, (1ㄱ)과 같이 ‘양’, ‘염소’, ‘쥐’에는 ‘숫-’이 붙으며 (1ㄴ)에 제시한 예들은 ‘수’다음의 소리가 거센소리가 된다.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쌍둥이/*쌍동이

※ ‘*쌍둥이’의 ‘쌍둥’을 한자 ‘쌍둥(雙童)’으로 생각하여 ‘*쌍동이’로 적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순 우리말인 ‘-둥이’ 앞에 ‘쌍’이 붙은 것이므로 ‘쌍둥이’로 적어야 옳다. ‘막둥이’, ‘검둥이’, ‘흰둥이’, ‘귀염둥이’, ‘바람둥이’ 등도 모두 ‘둥이’로 적는다.

씩이다/씩히다

- (1) ㄱ. 왜 그렇게 부모 속을 {씩이니/*씩히니}?
 ㄴ. 좋은 재주를 왜 {씩히고/*씩이고} 있어?

※ ‘속을 씩이다’만 ‘씩이다’이고 ‘재주를 씩히다’, ‘음식물을 씩히다’는 모두 ‘씩히다’이다.

아니꼬워/*아니꼬와

- (1) ㄱ. 옷감이 너무 고와서(←곱+--아서) 옷을 만들기가 아까워(←아깝+--아).
 ㄴ. 이삿짐 싸는 것을 좀 도와 줘.

※ ‘벼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곱다’, ‘돕다’만 ‘고와’, ‘도와’로 활용한다. 나머지 경우는 ‘부끄럽다 /부끄러워’, ‘가깝다/가까워’처럼 활용한다.

아니요/*아니오

- (1) ㄱ.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니?
 ㄴ. {아니요/*아니오}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2) 다음 물음에 예, {아니요/*아니오}로 답하십시오.

※ ‘예’의 짝은 ‘아니요’이고 ‘아니오’는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오’와 같이 ‘아니-’에 ‘-오’가 붙은 서술어이므로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는다.

안/않

- (1) ㄱ. 이제 다시는 술을 {안/*않} 먹는다.
 ㄴ. 영영 {안/*않} 볼 사람처럼 왜 그래?
 ㄷ. 그 일은 내가 하지 {안/*않}.
 ㄹ. 그 일은 내가 하지 {안/*않}.

※ ‘다시는 술을 {안/*않} 먹는다’에서는 ‘안’이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와 같은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안 만날 거야’, ‘안 보이니?’, ‘오지 않았어?’

알맞은/*알맞는

- (1) ㄱ. 빈 칸에 {알맞은/*알맞는} 답을 쓰시오.
 ㄴ. 혼자서 크는 아이가 어디 있어.
 ㄷ. 저렇게 큰 나무를 혼자서 들었다고?

※ ‘-는’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동사)과, ‘-은’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형용사)과 결합한다. 형용사 ‘예쁘다’의 경우, ‘예쁜 꽃’은 가능하지만 ‘*예쁘는 꽃’은 불가능하다. 형용사 ‘빠르다’도, ‘빠른 자동차’가 가능한 반면 ‘*빠르는 자동차’가 불가능하다. 동사의 경우에는 ‘먹는 밥’과 ‘먹은 밥’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알맞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알맞은’이 되어야 한다.

예스럽다/*옛스럽다

- (1) ㄱ. {예부터/*옛부터} 전해오는 미풍양속
 ㄴ. 이 마을은 곳곳에서 {예스러운/*옛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 ‘-스럽다’는 ‘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와 같이 명사에 붙는다. ‘예’는 명사(예로부터)이지만 ‘옛’은 관형사(옛 고향)이므로 ‘예스럽다’가 옳다.

올바른/*옳바른

※ ‘옳다’에 이끌려서 ‘올바른’이라고 적기도 하지만 ‘올바른’이 옳다.

웬지/*웬지

- (1) ㄱ. 오늘은 {웬지/*웬지} 기분이 좋아.
 ㄴ. {웬/*웬} 낯선 사람이 찾아 왔던데?

※ ‘웬지’는 ‘왜인지’에서 온 말이므로 ‘왜인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웬지’와 ‘웬’은 ‘웬지’나 ‘웬’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웬지 우울해’나 ‘웬 일로 먼저 전화를 했어?’와 같이 적는다.

요/오

- (1)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2) ㄱ. 무엇을 할까(요).
 ㄴ. 말씀 낮추십시오.
(3) ㄱ. 안녕히 가세요.
 ㄴ. 무엇하셔요?

※ ‘요’와 ‘오’의 구분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처럼 연결형일 때는 ‘이요’이다.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요’가 아니라 ‘이오’이다. ‘이것은 내 책이오’. ‘요/오’는 문장 끝에 붙는데 ‘요/오’를 빼고 문장이 성립하면 ‘요’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이다. ‘어떻게 살리-요’, ‘참으리-요’, ‘종자-요’는 ‘요’를 빼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이리 오시오’, ‘무엇 하오’는 ‘오’를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 ‘-세요/-셔요’는 항상 이 형태로 쓰인다.

위/윗/웃

- (1) ㄱ. 위쪽, 위층, 위턱, 위팔
 ㄴ. 윗목, 윗수염, 윗입술, 윗자리, 윗옷
 ㄴ'. 아랫목, 아랫수염, 아랫입술, 아랫자리, 아래옷
 ㄷ. 웃돈, 웃어른, 웃웃

※ ‘위’와 ‘아래’의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나 ‘윗’이 되고 대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웃’이 된다. (1ㄴ)의 경우는 (1ㄴ')처럼 ‘위’와 ‘아래’의 대립이 가능하지만 (1ㄷ)은 ‘*아랫돈’, ‘*아랫어른’의 대립이 불가능하다. ‘웃웃’과 ‘윗웃’은 둘 다 가능한데 ‘웃웃’은 ‘겉웃’을, ‘윗웃’은 ‘상의(上衣)’를 가리킨다.

예쁘다/*이쁘다

※ ‘이쁘다’를 많이 쓰지만 표준어는 ‘예쁘다’이다.

있음/*있슴

- (1) ㄱ. 철수는 서울에 있음.
 ㄴ.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2) ㄱ. 오늘은 보리밥을 먹음.
 ㄴ. 오늘은 보리밥을 먹습니다.
 (3) ㄱ. 자 다 같이 먹읍시다.
 ㄴ. 이것을 읽읍시오.

※ ‘있+음’이므로 ‘있음’이 옳다. ‘먹+음’일 때는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있습니다’와 혼동하여 ‘있슴’으로 쓰면 틀리다.

채/째/체

- (1) ㄱ. 돼지를 {통째로/*통채로} 구웠다.
 ㄴ. 옷을 입은 {채/*째/*체} 잠이 들었다.
 ㄷ. 조금 배웠다고 너무 아는 {체하지/*채하지} 마라.

※ ‘돼지를 통째로 구웠다’의 경우에는 ‘째’로 쓰고 ‘온 몸이 묶인 채로’와 같이 관형형 어미 다음에 올 때는 ‘채’로 쓴다. ‘체’는 언제나 ‘체하다’로만 쓰인다.

4. 띄어쓰기 익히기

- (1) 철수가, 연필이, 너같이, 서울에서처럼까지는, “먹었다.”라고, 먹는다기보다는
(2) 먹은 것, 갈 곳, 할 줄, 시키는 대로 할 뿐, 금 서 돈, 바둑 한 판, 옷 한 벌, 신 두 켤레, 십여 마리의 개, 일 학년/일학년, 제 일 학년/제일학년, 세 시 삼십 분 오 초/세시삼십분오초, 삼십여 년간, 1999 년 7 월 12 일/1999년 7월 12일, 30 원/30원
(3)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철수가 왔을지 모른다.
(4) 홍길동, 황보영/황보 영, 홍 씨, 홍길동 씨, 길동 씨, 홍 양, 홍순희 양, 순희 양, 홍 님, 홍길동 님, 길동 님, 홍 대감, 홍 과장, 홍 주임, 홍 선생, 홍 실장
(5) 사과, 배, 복숭아 등. 부산, 광주 등지. 장관 겸 부총리. 열 내지 스물.
(6) 먹어 보다/먹어보다, 막아 내다/막아내다, 비가 올 듯하다/비가 올듯하다, 할 만하다/할만하다 (호랑이만 하다), 될 성싶다/될성싶다, 예뻐지다, 부끄러워하다
(7) 가깝디가깝다, 오락가락, 성큼성큼, 요리조리, 하루하루, 울긋불긋, 동네방네
(8) 김치볶음밥, 새우튀김, 쇠고기덮밥, 전주비빔밥, 함흥냉면
(9) ① 아, √슬프구나! √ ② 예, √제가 √철수예요. √ ③ 1, √2, √3,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강의 교재 - 러시아 모스크바 -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어발음 교육현장 경험

정인순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어발음 교육현장 경험

정인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서론

외국어를 학습하는 교육생들의 모국어 간섭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는 발음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개별음소의 존재여부와 발음의 분화 정도, 서로 다른 음운현상, 초분절적 요소의 차이(강세와 억양 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에도 발음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러시아어에 없는 음소들이 한국어에 존재하고(자음의 이응이나 모음의 어 등), 또 비슷한 발음 같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분화 정도가 심해 러시아인들이 발음차이를 인식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ㄱ, ㅋ, ㆁ 같은 평음, 경음, 격음). 그리고 강세와 억양이 한국어에서는 아예 없거나 발달되지 못하였는데, 러시아어에서는 크게 발달하고 심화돼 한국어 발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한국어와 러시아어 사이에 존재하는 발음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모스크바국립대 한국어문학과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발음 차이를 개별음소 수준, 음절수준, 단어수준, 초분절적 수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시에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간단히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1. 개별음소의 발음

개별음소가 정확한 발음에 장애가 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한 언어에 존재하는 음소가 다른 언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

✓ 러시아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소:

받침에 오는 비음 “ㅇ”, 모음 “ㄱ”와 «→»

“ㅇ” 발음: 받침에 오는 “ㅇ”을 러시아 학생들은 주로 “ㄴ”으로 발음한다. 한편 러시아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알기 때문에 이음 발음에 대한 충분한 기초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매개어로 하여 이음 발음을 설명해주고,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이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 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 이음 발음을 소화하지만, 발음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가끔 한두 명씩 존재한다. 이때는 장기전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단계로 원어민이 하는 이음 발음을 잘 기억해두도록 시키고, 둘째, 기억한 발음을 발현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음 교정을 해주면 대체로 6개월에서 1년쯤 후에는 정상적인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ㄱ” 발음: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발음들 중 하나가 바로 “ㄱ”이다. “ㄱ” 발음을 가르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음기관을 이용한 조음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ㄱ”와 보통 “ㄴ”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두 소리를 발음할 때의 입술모양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즉, “ㄴ”을 발음할 때는 “ㄱ”보다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앞으로 내밀고(휘파람 불 때의 모양), “ㄱ”은 입술을 모으지도 말고 양 옆으로 벌리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되 “ㄴ”보다 위아래로 조금 더 크게 열도록 시킨다. 물론 “ㄱ”의 혀의 위치가 “ㄴ”보다 낮다는 사실도 강조해준다.

“ㅡ”의 발음: “ㅡ”를 보통 “ㅣ”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을 경우 90% 이상이 “이막”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어에는 “ㅡ”가 개별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ㄱ”과 비슷한 모음이 하나 있는데(ы) 아마 이 모음의 끝부분 발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 경우 “ㅡ”를 짧게 발음하는 연습을 시키면서 “ㅣ”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학생들이 자주 잊어버리므로 이 또한 지속적 교정이 필요한 모음이다.

*** «가»와 «깨», «재»와 «채»는 기본적으로 발음기관을 이용한 조음방법을 설명해주되, 한국인들도 굳이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는 만큼 무시하고 넘어간다.

√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어 음소들

자음 “Ж”와 “З”, “Ш”와 “Ц” 등

이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의 어려움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2) 음소의 세분화 정도가 크기 때문

외국인들이 한국어 자모 발음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ㄱ/ㄱ/ㄷ, ㄷ/ㄷ/ㄷ, ㅂ/ㅂ/ㅂ, ㅅ/ㅅ, ㅈ/ㅈ/ㅈ처럼 평음과 경음, 격음으로 구분되는 자음들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똑 같이 «н»나 «г», «з»로 들리는 자음들(«Б»와 «В», «П»와 «Ф», «Ж»와 «З»)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 경우 대체로 듣기에서부터 혼란이 시작된다. 모두가 똑 같이 들리거나 혹은 차이가 느껴져도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발음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쳐서 발음 연습을 시킨다.

- 조음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모스크바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과서에 나름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원어민의 발음을 잘 듣고 따라 한다.

원어민은 이 자음들의 발음이 구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발음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발음의 차이를 느끼면 그 미세한 차이를 머리 속에 저장하도록 시킨다. 그리고 원어민을 따라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음절이나 단어 속에서 이 발음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 듣기와 발음 테스트를 한다.

듣기 테스트 방법: 1) 원어민이 예를 들어 ㄱ/ㄱ/ㄷ 중 하나가 들어간 단어를 발음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ㄱ은 1번, ㄱ은 2번, ㄷ은 3번으로 하여 선택을 하도록 시킨다. 이때 말로 하지 말고, 공책에 해당 번호를 적거나 손가락으로 표시하도록 시킨다. 후에 정답을 말한 뒤 다시 방금 전 읽었던 세 단어를 다시 발음해주면서 그 차이를 재확인 시킨다. 2) 받아쓰기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공책에 적게도 하고, 칠판에 한 사람씩 불러내 쓰게도 시킨다.

발음 테스트 방법 -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단어가 적힌 카드를 읽게 시킨 뒤 원어민과 다른

학생들이 역시 공책에 해당 자음 번호를 적거나 손가락 수로 표시한다. 학생의 발음은 원어민의 답안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훈련을 두 주 정도 꾸준히 하면 상당한 진보가 나타난다.

***주의할 점

경음들을 «И [ts]»처럼 혀를 차듯이 발음하는 경향이 많은데 항상 이를 경계해야 한다.

3)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들의 부정확한 발음표기 때문

사실상 외국어와 자국어의 발음이 모두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체로 비슷한 발음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한국어 자모의 발음을 러시아어로 표기하면서 가장 유사한 발음을 가진 자모들을 이용한다. 이로 인해 몇 가지 발음 오류가 생기는데 다음과 같다.

- “케” 발음: 이 경우 러시아어 모음 E로 표기되므로 러시아인들이 대개 “예”로 발음한다.
- 단어의 첫 음절 첫 자음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 대부분 이 경우 평음이 아닌 격음 또는 경음으로 발음한다. 이는 한국어교과서들에서 ㄱ, ㄷ, ㅂ, ㅅ이 러시아 자음 K, T, П, C와 비교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은 딸로, 소리는 쏘리, 바람은 빠람, 국자는 꺾자, 재료는 쟈료 등으로 발음하여 어떤 경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2. 음절의 발음

음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받침의 발음이 문제가 된다.

- 1) 끝소리 현상: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경우 ㄱ, ㄷ, ㄹ, ㅁ, ㅂ, ㅇ의 대표음으로만 발음한다. 이는 도표암기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 2)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의 경우 하나만 발음하되, 끝소리 현상을 지켜서 발음한다. 이 또한 도표암기와 연습이 필요하다.

** 대체로 음절 발음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소화하는 부분이다.

3. 단어의 발음

1) 이 경우 자음동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사잇소리 현상 등 다양한 음운현상이 바른 발음에 영향을 미친다.

음운현상은 대체로 이론적 설명과 실제 발음 연습, 그리고 도표 외우기 등으로 해결한다. 구개음화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자음동화와 된소리 되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자음동화는 사실상 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변화 현상들을 이론상 체계화 한 것인 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각 음절들을 따로 발음하지 말고 연이어 발음하도록 요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자음동화가 무시되는 것은 대체로 학생들이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음절들을 하나씩 발음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된소리 되기와 사잇소리 현상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특별한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규칙을 설명한 뒤 지속적으로 교정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2) 긴 단어를 발음할 경우 학생들이 «으»나 «아» 같은 불필요한 소리를 버릇처럼 첨가할 때가 있다.

긴 단어가 한꺼번에 발음이 안 돼 중간에 쉬면서 버릇처럼 «으» 소리를 내는데, 이때 이 «으»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첨가되면 결과적으로 단어 자체가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천구백삼십오년 같은 경우 보통 «천느 구백크 삼십년» 또는 «천구백크 삼시브년», 한국경제학은 «한구크 경제학» 같이 발음된다. 그러므로 «으»나 «아» 같은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계속 주의시킨다. 매년 보면 신입생들의 30~40% 정도가 이러한 버릇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초분절적 요소

러시아인들의 한국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초분절적 요소로 강세와 억양, 모음축약 등을 들 수 있다.

1) 강세와 관련된 문제

- 러시아어를 하던 버릇 때문에 한국어 단어의 첫 음절에 강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

발음 실례: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제 친구는 서울에 삽니다.

한편 한국어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쉬는 부분에서 끝을 약간 올려줄 뿐 그 외에는 대체로 평탄하게 발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계속 훈련을 시킨다. 이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 특수이문문에서 의문사에 강세를 준다.

러시아의 특수이문문은 보통 의문사에 강세가 온다. 그래서 한국어 특수이문문을 발음할 때도 러시아 학생들은 의문사에 강세를 주면서 읽는다.

발음 실례:

이 책을 어디에서 사셨어요?

누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씨디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2) 억양과 관련된 문제

억양은 끊어 읽기와 주로 관계가 있다.

바른 끊어 읽기를 가르치며(단어구나 절 단위로 끊어 읽기, 의미상 끊어 읽기, 그리고 관형어와 꾸밈 받는 말 사이는 끊지 않도록 시킨다), 동시에 끊어 읽는 부분의 끝부분을 살짝 올려주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는 곳은 무조건 내리도록 가르친다.

- 명사가 열거된 경우

아래 문장을 발음할 때, 특히 열거된 명사들을 발음할 때 러시아 사람들은 평소 버릇대로 단어마다 나름대로의 강세를 부여하면서 읽어나간다. 그래서 단어 끝부분이 아닌 첫 음절이 강조되고 높아진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열거되는 각 단어들을 아주 짧게 끊어주기 때문에 단어 끝을 조금씩 올려서 발음해야 한다.

발음 실례:

제가 좋아하는 한국음식들로 비빔밥, 불고기, 떡국, 호박죽, 잡채, 김밥 등이 있습니다.

- 문장의 열거

한국어의 경우 일반 의문문을 제외한 모든 문장들의 끝을 내려서 읽거나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문장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경우 각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항상 조금씩 올려서 발음한다. 이는 러시아어를 말할 때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억양이다. 마침표가 찍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발음 실례: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러시아말을 공부합니다. 러시아는 처음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정이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는데 벌써 친구가 두 명이나 생겼습니다.

3) 모음축약

러시아어에서는 강세를 받는 모음은 길고 높게 발음하고, 강세가 없는 모음은 대체로 축약해서 들릴 듯 말듯 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한국어를 발음할 때도 각 단어에 강세위치를 정해준 다음 강세가 없는 모음은 버릇대로 축약하고 넘어간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발음오류가 생길 때가 있다.

발음 실례:

저는(즈는), 할아버지(호르브지), 한국어(훈국어)

결론

위에 언급된 내용들 외에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한편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대체로 이는 모국어 간섭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인 만큼 교육하는 사람이 러시아어와 그 버릇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나가면서 수정해주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이는 대체로 모스크바국립대처럼 원어민과의 접촉이 제한된 러시아대학들에 한한 것이고, 원광학교처럼 한국기관들에서 설립하여 원어민 강사가 주를 이루는 교육기관의 경우 대체로 발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강의 교재
－ 러시아 모스크바－

발행일 2010년 10월 14일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전 화 (02) 2669-9775
(02) 2669-9732
인쇄처 (주)크리홍보
